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교향곡 A장조/ 옹팔의 물레

Carl Adam Kandstrom(org)
Marc Soustrot/ Malmo Symphony Orchestra

마르크 수스트로와 말뫼 심포니가 Naxos를 통해 진행 중인
생상스 교향곡 시리즈의 2탄. 오르간의 화려한 사운드 스펙트럼을 피아노를
포함한 대편성 관현악에 더한 작곡가의 대표 교향곡인 교향곡 3번 '오르간'과
10대 중반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차르트를 연상케 하는 그의 첫 교향곡
완성작인 교향곡 A장조, 그리고 인상주의 적인 분위기를 담은
그의 교향시 '옹팔의 물레'를 함께 수록하였다.

8.573139

NAXOS New Releases

부담없는 가격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로드리고:
아랑훼스 협주곡/ 안달루스 협주곡/ 마드리갈 협주곡
Amadeus Guitar Duo
Eden-Stell Duo
Horst Hans Backer
International Philharmon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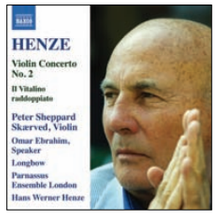
8.573441

라모: 다르다뉘 모음곡
블로우: 애도의 마스크
퍼셀: 결혼한 미남
헨델: 리날도 모음곡
Septura

8.573386

리스트: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피아노 편곡
Avan Yu(pf)

8.573349



헨체:
바이올린협주곡 2번/ 일 비탈리노 라도피안토
Peter Sheppard Skaerved
Hans Werner Henze
Parnassus Ensemble London

8.573289

유명 희극 서곡들
(니콜라이, 볼프-페라리, 플로토, 치마로사, 코르넬리우스 외)
Lance Friedel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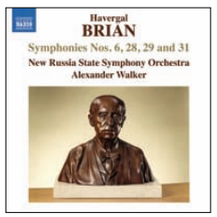
8.573418

빌라-로보스:
교향곡 12번 외
Isaac Karabtchevsky
Sao Paulo Symphony Orchestra

8.573451

브루사:
교향곡 1번/ 교향시 '메를린
Daniele Rustioni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8.573437



브라이언:
교향곡 6번/ 교향곡 28번/ 교향곡 29번/ 교향곡 31번
Alexander Walker
New Russia State Symphony Orchestra

8.573408

바체비치우스:
피아노협주곡 3번/ 피아노협주곡 4번
Gabriel Alekna(pf)
Christopher Lyndon-Gee
Lithuanian National Symphony

8.573282

페리:
무성영화 여주인공들/ 여름 야상곡/ 과거로부터의 브라스
Various Artists
Paul Phillips
RT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8.573105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02_922_0100 팩스: 02_922_2522
www.aulosmedia.co.kr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뮤직랜드/ 인터파크/ 풍월당/ 예전레코드/ GM뮤직(부산)/ 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1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1호 | April 2015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BEETHOVEN › SYMPHONIES NOS. 1-9

IVÁN FISCHER

*Hot Issue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사이클 DVD, Blu-ray

네덜란드 출신의 첼로 기대주 하리트 크레이흐 CD

시인 임의진 노르웨이의 길 CD

**Cover Story

RCO LIVE 베토벤 교향곡 전곡 DVD, Blu-ray

핫 이슈!!
2015년 4월 20일~23일 내한 공연한 RCO(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이반 피셔 베토벤 교향곡 전곡 DVD, Blu-ray 교향악적 혁명과 발전(Symphonia (r)evolution)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개 모두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걸작으로서 초연 이래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연주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이 문맥을 재구성하여 연주하는 지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 교향곡들의 해석과 음향은 계속 새로워졌다. 이반 피셔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영상물 전집은 이러한 새로움의 전통을 대변하는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베토벤이라는 음악적 풍경을 향해 떠난 진실된 발견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RCO Live 14109 [3DVDs]
RCO Live 14108 [3Blu-ray]

[북릿내용]

"작곡가로서 베토벤의 중요성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지휘자 이반 피셔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베토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귀족에게 봉사를 하는 것을 멈추고 오로지 인간 본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음악을 창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작곡가이다. 베토벤 이전의 음악가들과 작곡가들은 일종의 계약직 하인이지 예술가가 아니었다. 베토벤은 그가 그려낸 감정의 극적인 묘사가 대단히 강력하다는 점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작곡가다. 그의 열정과 리리시즘, 강렬한 집중력은 항상 거대하다. 베토벤을 듣고 공부하며 연주할수록 그 에너지와 힘, 비전에 고취되곤 한다. 베토벤의 음악은 진실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교향곡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베토벤 이전의 교향곡들은, 형식적으로 사실상 개별적인 악장들이 연속되는 일종의 모음곡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베토벤은 자신의 각 교향곡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3번 교향곡 '영웅'의 경우는 영웅에 대한 것이고 6번 교향곡 '전원'은 자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죠. 그는 결국 자신의 궁극적인 동시에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의 변용입니다. 오페라 '피델리오'와 교향곡 9번에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들 작품은 19세기 작곡가들이 우러러보는 최상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dall' inferno al paradiso)."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피셔는 베토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헌신해왔다. 2008년에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제작한 7번 교향곡을 녹음했고 최근에는 4번과 6번 교향곡을 녹음하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실제 연주회에서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시대악기 앙상블과 번갈아가며 연주하여 매번 열광적인 박수를 받아오기도 했다. 피셔는 베토벤은 시대를 앞선 작곡가였다고 말하며 연주를 통해 이것을 증명해보이고자 했다. 실제로 7번 교향곡 녹음에서는 같은 해에 작곡된 로시니와 베버, 요한 빌헬름 빌름스의 작품들을 함께 녹음, 수록하여 베토벤의 음악이 동시대에서 얼마나 독창적인가를 직접 보여주고자 했다. "당시 청중들이 7번 교향곡 피날레에 담긴,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한 리듬의 질주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피셔는 자신의 음반 내지에 이렇게 물으면서, "그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소개된 록음악에 비견할 만한 충격을 받았겠죠"라고 결론을 내렸다.

피셔는 베토벤의 교향악적 혁명(발전)은 1800년 4월 2일 초연된 저 결연한 1번 교향곡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1번 교향곡은 진정한 첫 번째 교향곡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작품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같은 고전주의 형식을 모델로 한 작품이지만, 베토벤은 그 안에서 신선함과 이례적인 밸런스, 전체적으로 탁월한 아름다움을 섬광처럼 터뜨렸다. 2번 교향곡은 그 이후 빠르게 작곡한 것으로서 "베토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미덕의 한계를 인지하고 자신이 속한 시대에 성공적으로 머무르고 있었지만, 이 작품에는 그의 후기 교향곡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관습에서 벗어난 혁명적인 사고들에 대한 조짐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흔적들이 담겨 있어요"라며 피셔는 그의 대담한 업적을 칭송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토벤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명백한 발전의 증거로 알려진 작품은 바로 1805년에 초연된 교향곡 3번 '영웅'이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인 테크닉을 적용한 작품으로서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음악에 담은 경우입니다. 진실로 위대한 교향곡이죠!"라고 피셔는 말한다.

한편 피셔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베토벤이 새로운 기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4번 교향곡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는 아주 작지만 가능성이 높은 음악적 모티브들로 시작하지만 끝없는 반복과 변주를 통해 교향곡 전체로 확장해 나아가죠. 이 모티브는 느린 악장에서는 오스티나토를 통해 멜로디를 반주해주고, 또 이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하여 피날레에서는 하이든적인 감수성에 의한 유머로 치환해버리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고전주의적인 형식적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진 것이에요. 놀라울 만큼 성숙한 작품이자 베토벤이 자신의 환상적인 작곡 기법을 모조리 보여준 완벽한 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의 후기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치형 주제는 이미 교향곡 5번에 담겨 있다. "이 교향곡은 비극으로부터 자유로 옮겨간다는 주제를 표현한 첫 번째 작품으로서, 나는 이 교향곡에 바스티유 감옥으로 돌진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에너지가 틀림없이 스며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숨어있는 일종의 관념과 같은 모든 외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음악은 연주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피셔 또한 이를 기꺼이 인정한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바로 악보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명확해요. 음악가로서 우리 모두는 이 악보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유일한 위험은 음악가들이 메트로놈 부호와 음표, 다른 음악적 지시들만 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베토벤의 경이로운 개성의 위대함 앞에 장님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감정을 고무하여 이를 발전시킨 뒤 거대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들은 극한에 이른 베토벤의 정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쉽고 유용한 방법은 베토벤이 홀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의 의도에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방식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선입관에 사로잡힌 생각과 다른 장애물들을 반드시 먼저 건너뛰어야만 하죠." 그리고 피셔가 베토벤의 작품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던 자유에 대한 관점이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할 때 왜 작곡가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목적이다. "왜 베토벤은 이렇게 특별한 프레이즈를 작곡했을까? 이렇게 특별한 화성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 어느 대목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정을 고무시키며 웃고 울게 만들게 했을까? 악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6번 교향곡에서 자기절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폭발적인 5번 교향곡을 작곡한 직후, 기분을 안정시키며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베토벤은 이 교향곡을 작곡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교향곡 6번 '전원'의 본질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안식과 명상을 위한 가장 위대한 찬가가 바로 이 작품이죠." 7번 교향곡은 적어도 '작곡기법적 걸작'에 속한다. "리듬의 신격화! 하나의 멜로디가 끝없이 반복되며 발전해나가는 모습은 두 번째 악장에서도 강박증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진정한 19세기의 록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8번 교향곡이 훌륭한 것은 베토벤이 이 작품을 통해 추상성을 흐트러뜨리고 팀파니를 옥타브를 조율함(팀파니를 혁신적으로 사용한 베토벤은 이전 교향곡들에서는 단6도 간격, A음과 f음으로 조율했고, 8번과 9번 교향곡에서는 한 옥타브 간격, F음과 f음으로 조율했다: 역자)과 동시에 극도의 쾌활함과 눈부신 색채감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이 남아있다. 피셔는 한숨짓는다. "이 교향곡은 그 자체로서 초인입니다. 인격을 부여받는 프로메테우스랄까... 한 마디로 세계를 바꾼 그러한 교향곡이죠.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세계를 바꾼 음악입니다." 피셔는 베토벤이 어떻게 자기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발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나는 무슨 작품이든 때가 되면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과거나 미래를 찬찬히 살펴보며 가늠할 만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향곡에 다가감에 있어서 모든 연주를 처음 하

는 것처럼 대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로열 콘세트르허바우 오케스트라와 같이 최고의 악단을 지휘할 때에도 왜 리허설이 그토록 중요한지, 왜 절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준다. "베토벤을 '안다'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청중들이 알아채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오케스트라가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죠. 베토벤의 교향곡들은 어떤 중심적인 것과 심도 깊은 탐구가 필요한데, 어떤 면으로는 배우가 한 배역을 계속 소화하다보면 그 이해가 넓어지며 발전해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베토벤 관현악 작품들의 강도 높은 집중력을 단원들 개개인에게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반 피셔(Ivan Fischer)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이반 피셔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작곡을 배운 뒤 비엔나로 유학을 온 뒤 한스 스바로프스키로부터 지휘를 공부했다. 그 시기 두 시즌 동안 니콜라우스 하르논쿠어트의 어시스턴트로 활동하며 콘서트 홀에서 실전을 익혀나가기도 했다. 1983년 피셔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창립, 많은 연주회를 열면서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음악감독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구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이전에는 켄트 오페라단 음악 감독과 워싱턴 DC의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한편 1987년 처음으로 지휘한 이후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를 자주 지휘하고 있고, 다른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들로부터도 정기적인 초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작곡가로서도 활동하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했고, 부다페스트의 말러페스트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페스티벌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헝가리 정부로부터 명예로운 문화대상인 코수트 훈장을 수여받았다.

[해외 리뷰]

1. **"피셔의 베토벤은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와 같다."** *프리츠 반 데르 바, 볼크츠크란츠(네덜란드 아침신문)*
2. **"RCO가 연주한 '전원'은 완벽 그 자체다... 파도가 굽이치는 듯한 7번 교향곡은...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전설적인 명연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 *루란드 하르젠동크, 헷 파롤(네덜란드 매일신문)*
3. **"피셔는 베토벤에게 새로운 빛을 투영시켰다."** *플로리스 동, NRC*

[유투브자료]

– All symphonies: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yGUOYulijlctF7SxH_McmLqhxl8psJz

– trailer' Beethoven 6 (we can remove the link in the last 15 seconds)http://youtu.be/bkRZdosExgw

[3Blu-ray]

RCO 14108/ Barcode: 814337019105/ LPCM 2.0/ DTS HD Master 5.0/ 16:9/ 1080i

[3DVDs]

RCO 14109/ Barcode: 814337019112/ LPCM 2.0/ DD 5.0/ 16:9/ NTSC

글: 폴 얀슨 / 번역: 박제성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북유럽의 또 다른 시각, 아니 청각을 열어줄 만한 시인 임의진의 '노르웨이의 길'

북유럽 노르웨이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만을 골라 모은 월드뮤직 선곡음반. 시인의 감성으로 빚어낸 여행 이야기와 그 하룻밤의 오로라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노르웨이의 신비로운 침묵과 얼음길 위로 여울져 흐르는 희귀한 노래들... 성가 가수 카롤라 마리아, 케롤라인 크루거, 손드레 브라트란드, 카리 브렘네스,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스크룩 합창단, 노르웨이 국립소년소녀합창단,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노벨상 수상식장의 노래손님 시너드 오커너까지 〈여행자의 노래〉 임의진 시인이 고르고 고른 18곡의 북유럽 백야의 노래들. 발걸음 소리 들리는 소란스런 새봄과 기나긴 겨울밤을 위한 외로움과 고독의 노래. 보헤미안, 쿠바, 러시아, 기차여행, 자전거여행, 담양여행 음반에 이은 또 다른 월드 뮤직 여행 시리즈...

AMC2-153

[수록곡 소개]

01. Jeg synger julekvad/ Pust Julero 야이 싱에르 율레크바드/ 프스트 율레로
02. Det hev ei rose sprunge/ Koret på Botsen 데 헤브 아이 로세 스프룽에/ 코레 포 보스텐
03. Gör det lilla du kan/ Carola 요르 데 릴라 두 칸/ 카롤라
04. Her kommer dine arme små/ Det Norske Jemntekor
하를 콤데르 디네 아름메 스모/ 데 노스케 엔테코르
05. Når en hedning feirer jul/ Jan Eggum 노르 엔 헤드닝 파이레르 율/ 얀 에굼
06. En elsker I Berlin/ Kari Bremnes 엔 엘스케르 이 베를린/ 카리 브렘네스
07. En drøm er aldri utro/ Karoline Krüger 엔 드뢈 아르 알드리 우트로/ 케롤라인 크루거
08. Blott en dag/ Aage Kvalbein & Iver Kleive
브로트 엔 닥/ 오게 크발바인 & 이베르 크라이베
09. Jeg er I herrens hender/ Sigvart Dagsland
야이 아르 이 헤렌스 헨네르/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10. Kyrie/ Skruk 키리에/ 스크룩
11. Å, Kunne jeg bare bli barn igjen/ Solveig Slettahjell
오 큔네 야이 바레 브리 반 이엔/ 숄베이그 슬레타헬
12. Det lyser i stille grender/ Vintermåne 데 뤼세르 이 스틸레 그렌데르/ 빈테르모네
13. Deilig er jorden/ Oslo Gospel Choir 다이리 아르 요렌/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
14. Hestene mine/ Jørn Simen 헤스테네 미네/ 욘 시멘
15. Kveldsbon/ Sondre Bratland 크벨스분/ 손드레 브라트란드
16. Ut i vår hage/ Arild Andersen 우트 이 보르 하게/ 아릴 안데르센
17.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Sinead O'Connor 시너드 오코너

아울로스 미디어 월드뮤직 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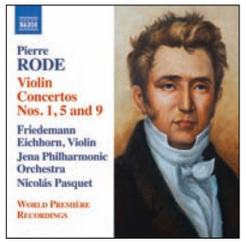
제작.배급/ 아울로스 미디어 http://www.aulosmedia.co.kr

Naxos

www.naxos.com

8.573331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죽음의 춤, 시프르와 로리에르
Vincent Warnier(org)/ Leonard Slatkin/ Lyon National Orchestra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르간 제작자인 카바이유-콜이 1878년 파리 엑스포를 기념하여 팔래 뒤 트로카데로에 설치했던 오르간이 최근 리용 오디토리움에 재설치되었다. 리용 오디토리움의 상주 오르간주자인 뱅셍 와르니에르와 레너스 슬래트킨이 이끄는 리용 국립 교향악단이 이를 기념하여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을 레코딩하였다. 그와 함께 작곡가의 인기 관현악곡인 '죽음의 춤'을 오르간을 위한 편곡으로 함께 담았다.



8.572755
로드: 바이올린협주곡 1, 5, 9번
Friedemann Eichhorn(vn)/ Nicolas Pasquet/ Jena Philharmonic Orch.

피에르 로드의 바이올린협주곡들은 그의 스승이었던 비오티가 파리에 도착했던 1782년부터 시작되었던 프랑스 바이올린 학파의 전성기를 반영한다. 과감하고도 젊은 기백이 느껴지는 1번, 보다 목가적인 분위기를 담은 5번, 그리고 로드가 러시아에 체재하던 무렵에 완성한 9번을 담고 있는데, 세 협주곡 모두 우아함과 신랄함, 그리고 해학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작곡가의 전형적인 피날레를 공유하고 있다.

8.573255
모레노-토로바: 플라멩코 협주곡, 기타와 관현악의 대화 외
Pepe Romero, Vincente Coves(guitar)/ Manuel Coves/ Malaga Philharmonic Orch.

페데리코 모레노 토로바(1891-1982)는 로드리고와 더불어 20세기 스페인 기타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손꼽힌다. 기타와 관현악을 위한 플라멩코 협주곡은 제목 그대로 스페인 집시 음악의 독특한 분위기를 담은 작품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페페 로메로의 빼어난 연주가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한다. 유희적인 성격의 작품인 기타와 관현악의 대화, 스페인 중부 지방의 풍미를 담은 라 만차의 노래 등을 수록.

8.573388
스탠퍼드: 피아노삼중주 2번, 피아노사중주 1번
David Adams(va)/ Gulod Piano Trio

19/20세기 전환기 영국음악을 대표하였던 작곡가의 한 사람인 스탠퍼드는 특히 실내악 장르를 절대음악의 표본으로 여겼다. 그의 피아노사중주 1번은 이 장르에 대한 작곡가의 숙련된 노하우가 녹아든 작품으로, 브람스의 걸작에 비견될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베토벤을 연상케 하는 느린 악장과 양단 악장의 격렬한 움직임이 인상적인 피아노트리오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1302
스크랴빈: 12개의 에튀드, 8개의 에튀드, 환상곡
Idil Biret(pf)

2014년 3월, 벨기에의 나뮈르에서 녹음된 이딜 비렛의 최신보. 신보에는 기교적인 난이도와 로맨틱한 감성 표현을 함께 요구하는 작품들인 12개의 에튀드 Op.8과 에튀드 Op.2의 1번, 8개의 에튀드 Op.42와 함께 스크랴빈 특유의 몽환적인 음악 스타일이 유감 없이 드러나는 작품인 환상곡 Op.28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3183
투리나: 알모도바르의 성, 토카타와 푸가, 파르티타, 전주곡 외
Jordi Maso(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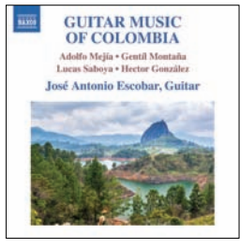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조르디 마소가 진행 중인 투리나 피아노 작품 시리즈의 19번째 음반. 본 신보는 투리나가 47세 되던 해인1929년 이후에 완성한 원숙기의 피아노 작품들을 담았다. 자국의 명승고적들을 묘사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인 '알모도바르의 성'과 '산루카르의 길모퉁이'를 비롯하여 전통적인 형식미에 입각한 파르티타, 토카타와 푸가, 5개의 전주곡 등이 수록되었다.

8.572983
안드레아 안티코가 출판한 16세기의 건반 음악들
Glen Wilson(cemb)

안드레아 안티코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건반음악악보 출판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던 달마티아 출신의 출판업자다. 그가 1517년에 출판한 건반작품집에는 소박한 시골 풍의 음악으로부터 고도의 다성부 작품들에 이르는 다양한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다. 본 신보는 저명한 하프시코드 연주자 글렌 윌슨에 의해 재정리된 뉴 에디션에 기초한 연주로 글렌 윌슨이 직접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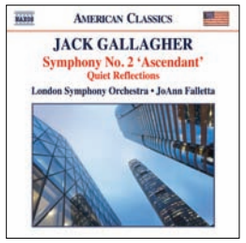
8.573439
기타 듀오 리사이틀 (헨델, 메르츠, 부르카르트, 텔레만 외)
Amadeus Guitar Duo

지난 4반세기 동안 정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상급 기타 듀오로 발돋움한 아마데우스 기타 듀오가 바로크에서 현존 작곡가의 작품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로 신보를 완성하였다.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HWV432의 편곡과 텔레만의 파르티타 플로 네이즈의 발췌에서 시작된 여정은19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기타 작곡가의 메르츠의 작품들을 거쳐서 간지, 부카르트, 도메니코니 등의 개성적인 현대작품들로 마무리된다.



8.573059
콜롬비아 기타 음악(메히아, 몬타냐, 사보야, 곤살레스)
Jose Antonio Escobar(guitar)

콜롬비아의 음악은 스페인, 아프리카, 인디언 등의 다양한 음악적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른 여타 라틴 국가들처럼 이 나라 역시 자신들의 독특한 성향을 반영한 빼어난 기타 음악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본 신보에는 카리브의 정열적인 리듬을 기반으로 한 곤살레스의 전주곡, 신랄한 표현과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몬타냐의 콜롬비아나 모음곡, 남미 고유의 풍미를 담은 사보야의 에르네스티나 모음곡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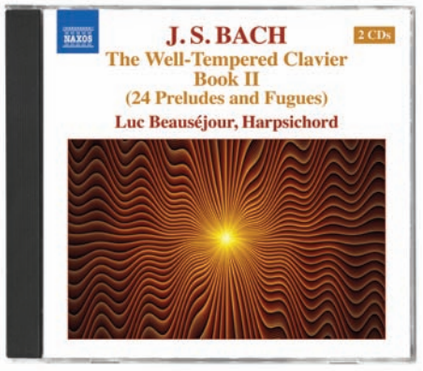


8.559768
갤러거: 교향곡 2번 'Ascendant', Quiet Reflections
JoAnn Falletta/ London Symphony Orchestra

1947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잭 갤러거는 현재 오하이오 우스터 대학의 교수로 후진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왕성한 창작활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의 교향곡 2번은 극적인 대비와 방대한 구조를 갖춘 색채적인 작품으로, 인간 정신의 투쟁사를 음악으로 그린 작품이다. 'Quiet Reflection'은 과거의 고요함에 대한 갈망을 서정적이고도 명상적인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8.570609
게 간루: 상하이의 추억들, 나비 서곡
Tsung Yeh/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1954년 상하이에서 태어난 게 간루는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출신 중에서 가장 국제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작곡가다. '상하이의 추억들'은 제목 그대로 작곡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문화혁명 이전의 상하이의 구석구석에 대한 따뜻한 추억과 문화혁명 와중의 혼란과 격동을 묘사적으로 표현한 관현악곡이다. 상하이 음악원 시절의 은사들에게 헌정한 작품인 '나비 서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564-65 **[2CDs]**
JS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제2권
Luc Beausejour(ce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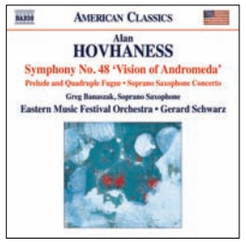
2007년에 선보였던 1권에 이어서 캐나다의 중견 하프시코드 연주자인 뤽 보세주르의 평균율 2권이 출시되었다. 인터내셔널 피아노로부터 '적절한 템포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본능, 그의 연주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호평을 받았던 1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2권에서도 그의 노련하고도 정교한 연주는 바흐의 위대한 세계를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브 보프레가 제작한 Hemsch & Blanchet 복제품을 연주에 이용했다.

8.573138
생상스:
교향곡 1번, 교향곡 2번, 교향시 '파에통'
Marc Soustrout/ Malmo Symphony Orchestra

생상스는 프랑스의 멘델스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서부터 조숙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 그가 17세에 완성한 교향곡 1번은 베를리오즈와 구노의 격찬을 받았던 작품이며, 우아하게 조탁된 교향곡 2번은 푸가를 적용한 1악장이 대단히 인상적인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를 현란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교향시 '파에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1356
P. 스탠포드:
교향곡 1번 '사계', 첼로협주곡, 판타지 전주곡
Raphael Wallfisch(vc)/ David Lloyd-Jones/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2014년 75세로 사망한 영국 작곡가 패트릭 스탠포드가 1970년대 전반기에 완성한 두 편의 관현악걸작을 함께 담은 음반. 교향곡 1번 '사계-영국의 한 해'는 사계절을 각각을 음악으로 표현한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의 한 주제를 차용하여 완성한 첼로협주곡은 이 작품의 헌정 대상이자 초연자인 명 첼리스트 라파엘 월피시가 독주를 담당하였다.



8.559755
호바네스: 교향곡 48번 '안드로메다 비전', 소프라노 색소폰 협주곡, 전주곡과 사중 푸가"
Greg Banaszak(sax)/ Gerard Schwarz/ Eastern Music Festival Orchestra

앨런 호바네스(1911-2000)는 일생에 걸쳐 무려 67편의 교향곡을 완성했던 작곡가다. '안드로메다의 비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의 교향곡 48번은 거대한 선율과 아련한 오케스트라 색채를 통해 우주의 방대함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곡가의 가장 로맨틱한 성격의 협주곡인 소프라노 색소폰 협주곡과 대위법에 대한 뛰어한 재능을 담은 '전주곡과 사중 푸가'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3399
슈만: 카니발, 나비, 다비트 동맹 춤곡
Boris Giltburg(pf)

슈만의 창의적이고도 개성적인 피아노 연작 3 작품을 함께 수록한 음반. 자신과 클라라의 약혼 직후에 작곡된 자전적 작품인 '다비트 동맹 춤곡', 젊은 상상력을 담은 '나비',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피아노 걸작의 하나인 '카니발'이 바로 그것들이다. 201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모스크바 출신의 젊은 비르투오조 보리스 길트버그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8.573193
리스: 바이올린소나타 Op.8-1,2, 그랑드 소나타 Op.19
Eric Grossman(vn)/ Susan Kagan(pf)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는 훌륭한 음악적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여러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위대한 명성에 가려진 채로 평가절하되었던 인물이다. 최근들어 건반작품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보에 수록된 3편의 바이올린소나타들은 모차르트로 대표되는 빈 고전주의 스타일을 충실히 반영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8.573261
훔멜: 피아노트리오 1번, 4번, 5번
Gould Pian Trio

모차르트와 하이든 모두의 가르침을 받았던 훔멜은 당대를 대표하는 피아노 비르투오조였으며, 작곡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의 피아노트리오들은 유려한 선율미, 풍부한 소노러티, 음악적인 유모어를 겸비한 작품들이며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듯한 부분들도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그랜드 트리오 콘체르탄테인 5번은 피아노의 빼어난 활약상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8.573160
알베니스: 12개의 성격적 소품, 피아노소나타 3번
Hernan Milla(pf)

알베니스 피아노 작품 시리즈의 일곱 번째 음반인 본 신보에는 작곡가의 이른 원숙미를 담은 두 작품을 담고 있다. 12개의 성격적 소품은 타이틀 그대로 안달루시아 민속음악, 스카를라티의 바로크 스타일, 쇼팽의 로맨틱한 서정을 비롯한 다양한 스타일을 망라하는 절묘한 소품들을 모은 작품집이다. 피아노소나타 3번은 로맨틱한 정서와 현란한 초절기교를 겸비한 작품이다.

8.573292
로시니: 노년의 잘못들 1, 2, 3, 10, 11, 14권 발췌
Alessandro Marangoni(pf, org)/ Marco Berrini/ Ars Cantica Choir & Consort

로시니 피아노 작품 시리즈의 일곱 번째 음반. '노년의 잘못들' 중에서 피아노와 성악을 위한 작품 위주로 수록한 음반이다. 피아노곡 'Andantino mosso'는 최근 필사본이 재발견된 작품이며, 'La notte del Santo Natale' 역시 최초 녹음되었다. 그외 '곤돌라사공', '마이어베어를 위한 장송곡', '아베 마리아', '타이탄의 노래', '축배의 노래' 등의 다채로운 독창 및 합창곡들을 수록하였다.

8.571361
워드워즈: 첼로소나타 2번, 녹턴, 스케르초, 첼로소나타 Op.70/ 홀브루크: 판타지 소나타/ 부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추억, 엘레지"
Raphael Wallfisch(vc)/ Raphael Terroni(pf)

3명의 영국 작곡가들이 완성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매력적인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 버르톡과 쇼스타코비치의 영향이 느껴지는 윌리엄 워즈워드의 작품들인 두 편의 첼로소나타들과 야상곡, 스케르초, 44세로 요절한 비운의 작곡가 윌리엄 부시의 화려함과 서정성을 겸비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조셉 홀브루크의 판타지-소나타 등을 수록하였다.

8.573361
브로톤스: 교향곡 6번 '콘사이즈', 부활, 고집, 이민자의 발라드
Salvador Brotons/ Barcelona Symphonic Band

1959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난 살바도르 브로톤스는 지휘자와 작곡가 양쪽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곡가로서 특히 그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바로 심포닉 밴드를 위한 작품들이다. 그의 교향곡 6번 'Concise'는 리드믹한 다이나미즘과 서정성, 의식에 걸맞은 장중함을 겸비한 작품이다. 카탈루냐 민속 관악기인 테노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이민자의 노래'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3135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바이올린협주곡 2번,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이탈리아협주곡"
Tianwa Yang(vn)/ Pieter-Jelle de Boer/ SWR Sinfonieorchester Baden Baden & Freiburg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인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인 '이탈리아협주곡'은 작곡가의 실질적인 첫 관현악 도전작으로, 이번에 세계 최초로 녹음되었다. '예언자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바이올린협주곡 2번은 하이페츠의 극찬을 받았던 작품으로, 성경의 인물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를 음악으로 표현한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독특한 작품이다.

8.573330
코스테르: 드라마틱 모음곡, 왈츠 모음곡, 작은 서곡.
Jonathan Kaell/ Orchestre Estro Armonico Luxembourg

룩셈부르크 출신의 루 코스테르(1889-1973)는 양 대전 중간기에 피아니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작곡가로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작품을 남겼다. 피아노 원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한 'Lore-Lore'와 'Moseltraume'은 193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던 왈츠들이며, 드라마틱 모음곡, 작은 서곡과 같은 작품들에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도 감각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8.573100
몸푸: 가곡 2집
Marta Matheu(sop)/ Jordi Maso(pf)

페데리코 몸푸(1893-1987) 가곡 시리즈의 두 번째이나 마지막 음반. 연가곡 'Becquerianas'는 안달루시아 민속음악과 기교적인 피아노 반주, 현란한 보컬 라인이 결합된 작품이다. 또 다른 연가곡인 'Comptines'는 마치 어린이를 위한 동요처럼 밝은 기운과 간결한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5개의 가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3237
마이어: 라반에게서 도망친 야곱
Various Singers/ Franz Hauk/ Simon Mayr Chorus & Ensemble

시몬 마이어(1763-1845)는 바이에른에서 태어나 북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작곡가다.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큰 인기를 구가했지만,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빨리 잊힌 비운의 작곡가가 되었다. 오라토리오 '라반에게서 도망친 야곱'은 오페라들을 통해 발휘되었던 극음악에 대한 그의 빼어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특히 목관의 효과적인 활용법이나, 중창과 합창의 적절한 배치 등이 주목할 만하다.

8.578293-94
음악 속의 전투
Various Artists

전쟁을 소재로 한 클래식 명곡들을 두 장의 CD에 가득 채운 편집음반.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 프로코피에프의 '알렉산더 네프스키' 홀스트의 '화성', 하차투랸의 '스탈린그라드의 전투 모음곡', 쇼스타코비치의 '베를린 함락', 야나첵의 '타라스 불바', R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바그너의 '발퀴레의 비행', 이폴리토프-이바노프의 '조지아 행진곡', 스메타나의 '사르카' 등을 수록.

8.573366
아놀드: 루츠 오브 헤븐/ 데이비드 코퍼필드
William Stromberg/ Moscow Symphony Orchestra

말콤 아놀드(1921-2006)는 아홉 편의 교향곡을 완성한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심포니스트였으며, 영화 음악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작곡가였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콰이 강의 다리'가 워낙 유명하지만, 본 음반에 수록된 거장 존 휴스턴 감독의 '루츠 오브 헤븐'과 그의 마지막 영화음악인 '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도 그의 탁월한 재능과 안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8.572978
풀랑: 미사 G장조, 7개의 샹송, 사순절을 위한 모테트, 성탄절을 위한 모테트
Noel Edison/ Elora Festival Singers

프랑시스 풀랑은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부친의 죽음 이후 한 동안 냉담자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절친이었던 작곡가 피에르 페로의 죽음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온 그는 일련의 뛰어난 종교합창곡들을 연이어 완성하였다. 본 음반에는 그의 대표적인 무반주 종교합창곡들인 '미사 G장조', '사순절을 위한 4개의 모테트', '성탄절을 위한 4개의 모테트'가 함께 수록되었다.

8.573288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 16집
Duanduan Hao(pf)

도메니코는 바흐, 헨델과 같은 해인 1685년에 태어났다. 550편이 넘는 건반소나타가 그의 가장 큰 음악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를라티 소나타시리즈의 16번째인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소나타들 중 대작에 속하는 K417, K260을 비롯한 18편의 소나타가 수록되었다. 2009년 상하이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중국 피아니스트 두안두안 하오가 연주를 맡았다.

8.573192
쿠즈민: 경건한 노래들, 극부수음악들
Mila Shkirtil(ms)/ Yuri Serov/ Karelia State Philharmonic Symphony Orchestra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인 미하일 쿠즈민(1872–1936)은 젊어서 작곡가로서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였다. 자신의 시에 의한 관현악 반주의 합창곡인 '경건한 노래들'들은 자국의 옛 음악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완성한 작품이며, 아름다운 로망스를 담고 있는 극부수음악 '가장무도회', 말러의 영향이 느껴지는 극부수음악 '명예로운 종치기 모임' 등을 수록.

8.573344
비제: 로마교향곡, 작은 모음곡, 장송행진곡
Jean-Luc Tingaud/ RT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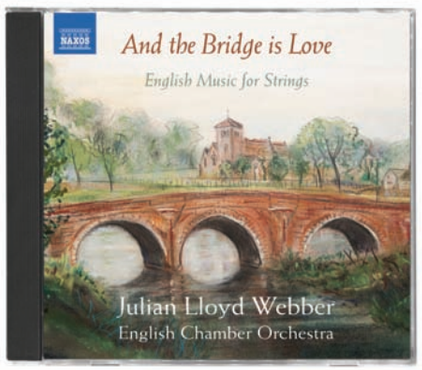
〈카르멘〉의 명성에 가려진 비제의 관현악작품들을 수록한 음반. 로마 대상에 대한 부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받았던 그 나라의 풍광을 교향곡으로 그려낸 로마 교향곡, 그의 첫 관현악작품인 서곡 A장조, 망실된 오페라의 전주곡으로 작곡된 '장송행진곡', 보불전쟁의 상흔을 담은 '파트리', 피아노연탄곡인 '어린이 놀이'의 관현악버전인 '작은 모음곡' 등을 수록.

8.573254
체르니:
벨 칸토 콘체르탄테
Rosemary Tuck(pf)/ Richard Bonynge
English Chamber Orchestra

베토벤의 제자이자 당대의 대표적인 건반 비르투오조였으면, 오늘날에는 피아노 교본으로 너무나 친숙한 이름인 카를 체르니. 신보에는 그가 4편의 벨 칸토 오페라들(벨리니의 〈노르마〉, 오베르의 〈프라 디아볼로〉, 벨리니의 〈해적〉, 파치니의 〈프랑스의 아라비아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완성한 화려한 피아노 독주를 담은 콘체르탄테 양식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8.573139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 교향곡 A장조/ 옹팔의 물레
Carl Adam Kandstrom(org)/ Marc Soustrot
Malmo Symphony Orchestra

마르크 수스트로와 말뫼 심포니가 Naxos를 통해 진행 중인 생상스 교향곡 시리즈의 2탄. 오르간의 화려한 사운드 스펙트럼을 피아노를 포함한 대편성 관현악에 더한 작곡가의 대표 교향곡인 교향곡 3번 '오르간'과 10대 중반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차르트를 연상케 하는 그의 첫 교향곡 완성작인 교향곡 A장조, 그리고 인상주의 적인 분위기를 담은 그의 교향시 '옹팔의 물레'를 함께 수록하였다.



8.573250
현을 위한 영국 음악
Julian Llyod Weber(vc, cond)
English Chamber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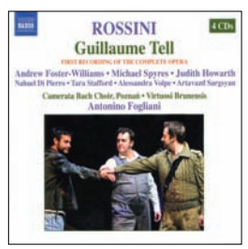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와 '서주와 알레그로', 월튼의 '헨리 5세' 중 현을 위한 두 소품, 델리어스의 '두 개의 수채화', 본 윌리엄스의 '성격적 모음곡' 중 전주곡과 같은 유명 작품 외에도, 하워드 구달의 매력적인 소품인 'And The Bridge is Love', 본 음반에서 지휘와 첼로를 겸하고 있는 줄리언 로이드 웨버의 아버지인 윌리엄 로이드 웨버의 '달'과 같은 매력적인 현을 위한 영국 근현대작품들을 가득 담고 있는 음반.

8.573365
카스티요: 기타작품집
Marcello Fantoni(guitar)/ Castillo Quartet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카스티요(1930–2005)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작품을 남겼다. 그의 기타 작품들은 상당수가 작곡가의 생전에 미발표된 것들이지만, 이 악기에 대한 그의 깊은 안목을 여실히 드러낸다. 열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소나타 외에도, 아랍 고유의 시가에서 영감을 얻은 '알카사르의 카시다스', 20세기에 완성된 몇 안 되는 기타를 포함한 실내악 작품인 기타 오중주 등을 담고 있다.

8.559756
번스타인: 피아노작품집
Alexandre Dossin(pf)

작곡가로서 번스타인은 무대음악이나 교향곡을 비롯한 관현악 작품들로 유명하지만, 그는 자신의 악기인 피아노를 위해서도 매력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20세에 완성한 피아노소나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청년 작곡가의 패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며, 각각 7개와 13개로 구성된 기념일 연작은 코플랜드, 쿠세비치키를 비롯한 동료 음악가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소재로 완성한 독특한 소품집이다.



8.660363–66
로시니: 기욤 텔
Various Singers/ Antonino Fogliani/ Virtuosi Brunen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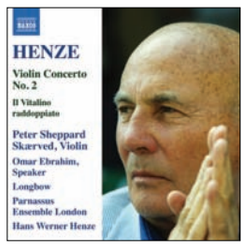
로시니가 완성한 4막의 장편 오페라 〈기욤 텔〉(윌리엄 텔)은 유명한 서곡과 친숙한 내용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의외로 음반 선택의 폭은 넓지 않은 편이다. 본 신보는 2013년 빌트바트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오리지널 무삭제 버전의 최초 레코딩이기도 하다. 1831년 파리에서 공연된 축약 버전의 피날레와 4편의 발레 삽입곡들도 별도의 트랙으로 함께 수록되었다.

8.573386
라모: 다르다뉘 모음곡/ 블로우: 애도의 마스크/ 퍼셀: 결혼한 미남/ 헨델: 리날도 모음곡
Septura

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들의 금관 수석들로 구성된 브라스 앙상블 셉투라가 Naxos를 통해 발표한 두 번째 음반. 낭만파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편곡했던 첫 음반과 달리, 이번 신보에서는 라모의 〈다르다뉘〉, 퍼셀의 〈결혼한 미남〉, 블로우의 〈비너스와 아도니스〉, 헨델의 〈리날도〉와 같은 바로크 작곡가들의 극음악들을 멤버들 스스로의 맛깔스런 편곡으로 들려준다.

8.573349
리스트: 슈베르트 겨울나그네와 백조의 노래 피아노 편곡
Avan Yu(pf)

홍콩 출신의 캐나다 피아니스트 에이번 유는 2012년 시드니 국제 피아노콩쿨에서 우승하면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Naxos 데뷔 음반을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연가곡 두 편으로 장식하였다. '겨울나그네' 중에서는 '방인사', '환상의 태양', '용기', '우편마차'를 비롯한 8곡을, '백조의 노래' 중에서는 '아틀라스', '어부의 딸', '세레나데'를 비롯한 10곡을 담았다.



8.573289
헨체: 바이올린협주곡 2번/ 일 비탈리노 라도피안토
Peter Sheppard Skaerved()/ Hans Werner Henze/ Parnassus Ensemble London

헨체의 바이올린협주곡 2번은 극음악과 기악협주곡의 중간에 자리잡은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이다. 독주 바이올린 외에도 베이스 바리톤의 낭송자가 작품을 이끌어간다. 독주 바이올린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풍의 작품인 '일 비탈리노 라도피아토'는 바로크 작곡가 토마소 비탈리에 대한 오마주 성격의 작품이다. 바이올린협주곡 2번은 작곡가가 직접 지휘를 맡은 콘서트 실황 레코딩이다.

8.573418
유명 희극 서곡들 (니콜라이, 볼프-페라리, 플로토, 치마로사, 코르넬리우스 외)
Lance Friedel/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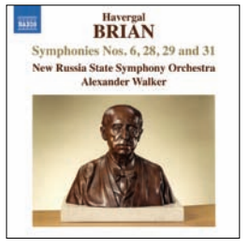
18세기 이탈리아의 오페라 부파로부토 비롯된 희극 오페라의 전통은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 빈의 오페레타를 비롯한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내었다. 신보는 니콜라이의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볼프-페라리의 〈수산나의 비밀〉, 토마의 〈미뇽〉, 플루토의 〈마르타〉, 오베르의 〈프라 디아블로〉, 로르칭의 〈황제와 목수〉, 코르넬리우스의 〈바그다드의 이발사〉를 비롯한 유명 희극 오페라 서곡을 담았다.

8.573451
빌라-로보스: 교향곡 12번 외
Isaac Karabtchevsky/ Sao Paulo Symphony Orchestra

빌라-로보스는 70세가 되던 해인 1957년에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12번을 완성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이 교향곡은 만년의 작품임에도 역동적인 리듬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 브라질 민속음악적인 요소를 도입한 독창적인 관현악곡인 'Uirapuru'와 어린이합창과 혼성합창을 요구하는 세속 칸타타인 'Mandu-Carar'가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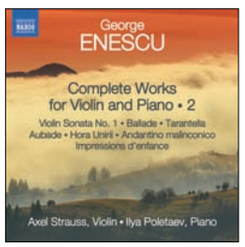
8.573437
브루사: 교향곡 1번/ 교향시 '메를린
Daniele Rustioni/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밀라노 출신의 여류 작곡가 엘리자베타 브루사(1954년생)의 관현악 작품 시리즈의 제3탄. 1988년에 착수하여 2년 뒤에 완성한 교향곡 1번은 그가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해 완성한 최초의 작품으로,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조성음악체계에 기초한 작품이다.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마법사를 소재로 완성한 풍부한 색채와 강렬한 리듬의 교향시 '메를린'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3408
브라이언: 교향곡 6번/ 교향곡 28번/ 교향곡 29번/ 교향곡 31번
Alexander Walker/ New Russia State Symphony Orchestra

하버갈 브라리언은 1927년에 거대한 규모의 1번 '고딕'을 완성한 이후 1972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무려 32편의 교향곡을 완성하였다. 신보에는 각각 간결한 구성과 폴리포닉한 성부의 어울림이 특징적인 두 편의 단악장교향곡들인 6번과 31번과 더불어, 고전적인 4악장 구성으로 완성한 교향곡들인 28번과 29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28번의 거친 박력과 29번의 서정적인 선율미가 강한 대비를 이룬다.



8.572692
에네스쿠: 바이올린소나타 1번/ 어린시절의 인상 외
Axel Strauss(vn)/ Ilya Poletaev(pf)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했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이자 작곡가인 에네스쿠를 두고 ""모차르트 이후 가장 위대한 음악적 재능'이라고 극찬하였다. 그가 16세에 완성했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에서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영향이 진하게 드러난다. 아기자기한 소품 모음집인 '어린 시절의 인상'과 '타란텔라'와 '발라드'를 비롯한 개성적인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1357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영국 음악들 (백스, 피스크, 해밀턴 외)
Nicholas Cox(cl)/ Ian Buckle(pf)

20세기 전반기의 영국을 대표했던 클라리넷 연주자인 프리데릭 서스턴을 위해 완성되었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3편의 작품들을 함께 수록한 음반. 켈트 민속음악에 기초한 백스의 소나타, 변주곡 양식의 2악장이 인상적인 피스크의 소나타, 개성적인 3개의 악장들로 구성된 해밀턴의 3개의 야상곡이 바로 그것들이며, 신보의 연주를 맡은 니콜라스 콕스를 위해 완성된 두 작품도 함께 수록되었다.

8.573397
헨델: 건반 모음곡 5-8번
Philip Edward(pf)

헨델의 건반 모음곡들은 작곡가의 방대한 작품 목록 속에서 그리 눈에 띄는 작품들이 아니지만, 1720년에 작곡된 8개의 모음곡은 이 분야의 진정한 걸작으로 손꼽힌다. 이 음반에는 1집(8.572197)에 이어서 후반부의 4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전형적인 프랑스 양식의 춤곡 모음곡 속에 이탈리아 풍의 감미로운 에어와 토카타 그리고 푸가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놓은 이 작곡가의 다재다능함을 엿보게 된다.

8.557516
베베른: 성악 작품들과 실내악 작품들
Various Artists/ Robert Craft/ Philharmonia Orchestra

안톤 베베른의 성악작품과 실내악작품을 함께 수록한 음반. 그가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편곡한 스승 쇤베르크의 챔버심포니, 소프라노와 혼성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강력한 힘을 지닌 작품인 칸타타 1번, 실내악의 새 지평을 연 작품들인 현악사중주 Op.28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6개의 바가텔, 그리고 피아노 반주의 가곡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3282
바체비치우스: 피아노협주곡 3번/ 피아노협주곡 4번
Gabriel Alekna(pf)/ Christopher Lyndon-Gee/ Lithuanian National Symphony

비타우타스 바체비치우스(1905-1970)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다. 2차대전 발발과 함께 미국에 정착하게 된 그는 모국에 대한 깊은 향수를 자신의 음악을 통해 드러내었다.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완성한 그의 피아노협주곡들은 스크리아빈의 신비주의적 분위기의 오케스트레이션과 화려한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독주 파트가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8.573105
페리: 무성영화 여주인공들/ 여름 야상곡/ 과거로부터의 브라스
Various Artists/ Paul Phillips/ RTE National Symphony Orchestra

윌리엄 페리는 무성시대의 영화 배경음악들을 리바이벌하는 작업에 열의를 쏟고 있는 인물이다. 메조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무성영화 히로인'은 그레타 가르보를 비롯한 8명의 여배우들을 소재로 완성한 작품이며,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여름 야상곡'은 킹 비더의 영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과거로부터의 브라스'는 튜바의 전세대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오피클레이드를 위한 협주곡이다.

8.573347-48
쿠프랭: 여러 나라들
Juilliard Baroque

여러 나라들'(Les Nations)은 프랑소아 쿠프랭이 프랑스의 춤곡 모음곡과 이탈리아의 트리오 소나타 양식을 혼합하여 완성한 방대한 실내악 프로젝트다. 작품집을 구성하는 4개의 ordre는 당대 유럽을 대표하는 4개의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 스페인, 신성로마제국, 피에몬트의 사보이를 각각 나타낸다.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목인 모니카 허젯을 중심으로 구성된 줄리어드 바로크가 연주를 담당하였다.

8.559650
기타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실내악 작품들 (커니스, 리더맨, 맥키)
David Tanenbaum(guitar, cond)/ San Francisco Conservatory Guitar Ensemble etc.

기타를 포함하는 미국 실내악 작품을 수록한 음반. 아론 재이 커니스의 '2 Awakenings & a Double Lullaby'는 소프라노의 노래를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가 반주하는 독특한 연가곡이다. 호르헤 리더맨의 Aged Tune'은 보케리니 이후 보기 드문 기타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작품이며, 스티븐 맥키의 'Measures of Turbulence'는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기타 앙상블을 위한 작품이다.

8.573441
로드리고:
아랑훼스 협주곡/ 안달루스 협주곡/ 마드리갈 협주곡
Amadeus Guitar Duo/ Eden-Stell Duo/ Horst Hans Backer/ International Philharmonie

호아킨 로드리고의 대표 기타협주곡 3곡을 함께 수록한 음반. 2악장이 모 영화 방송의 타이틀로 사용되어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인 아랑훼스협주곡, 기타 가족 로스 로메로스를 위한 작품인 4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스협주곡, 전통적인 3악장 형식을 벗어나 마드리갈, 판당고, 사파테아도 등의 다양한 이베리아 전통 춤곡들로 구성된 독특한 작품인 2대의 기타를 위한 마드리갈협주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27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돈 환
Mariss Jansons/ Bavarian Radio Symphony Orchestra

본 음반에 수록된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2013년 3월, 뮌헨의 필하모니 임 가스타익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Arthaus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되었던 연주와 동일한 기간에 녹음된 것이다. 함께 수록된 '돈 환'은 2014년 2월 허큘레잘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얀손스의 호방한 지휘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중량감 넘치는 사운드는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Ondine

www.ondine.net

ODE 1240-2
그라우프너: 트리오소나타
Members of Finnish Baroque Orchestra

바흐, 텔레만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작곡가인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는 1,300곡 가량의 칸타타, 80편 이상의 관현악모음곡, 50편 가량의 협주곡등을 후대에 남겼다. 작곡가의 관현악 모음곡 음반으로 호평을 받았던 핀란드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 다양한 악기 조합을 위한 트리오소나타들에 도전하였다. 비올라 다모레와 샬뤼모, 바순과 샬뤼모, 트라베르소 플루트와 비올라 다모레 등의 독특한 조합이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ODE 1250-2
모차르트: 피아노모음곡 KV.399, 작은별 변주곡 외
Anastasia Injushina(pf)

바흐 가족들의 건반협주곡을 담았던 데뷔 음반에 이어서, ARD 콩쿠르 우승자 출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 아나스타시아 인유쉬나가 Ondine에서의 두 번째 음반을 선보였다. 모차르트는 1780년대에 바로크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 본 신보에는 당시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모차르트의 복고풍 건반작품들이 중점적으로 수록되었다. 우리에게는 작은별 변주곡으로 잘 알려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변주곡도 함께 수록.

ODE1255-2
사리아호: 에밀리 모음곡, 4개의 즉흥곡, 테라 메모리아
Karen Vourch(sop)/ Marko Letonja/ Orchestre Philharmonique de Strasbourg

카일라 사리아호는 소피아 구바이둘리나와 더불어 현존 음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류 작곡가다. 프랑스의 실존 여류 과학자를 소재로 완성한 자신의 동명 오페라를 모음곡의 형태로 간추린 '에밀리 모음곡', 현악합주를 위한 명상적인 작품인 'Terra Memoria', 작곡가의 대표 성악곡인 'Quatre instants'를 오리지널인 피아노반주 대신 관현악 반주 버전으로 수록하였다.

ODE1253-2
쇼스타코비치: 전주곡/ 프로코피에프: 덧없는 환상/ 바일: 서푼짜리 오페라 중 7 소품
Benjamin Schmid(vn)/ Lisa Smirnova(pf)

오스트리아의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벤야민 슈미트가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작품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으로 연주하였다. 드미트리 치가노프가 편곡한 쇼스타코비치의 24개의 전주곡 Op.34 중에서 14곡, 빅토르 데레비안코가 편곡한 '덧없는 환상' 전곡을 담았으며, 쿠르트 바일의 대표작 '서푼짜리 오페라'의 주요 선율들을 슈테판 프렌켈의 편곡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ODE1268-2D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Op.10 1-3번/ Op.53 '발트슈타인'/ Op.54/ Op.57 '열정'
Paavali Jumppanen(pf)

소나타 31번 '함머클라비어'가 포함된 첫 음반으로 Classica의 CHOC에 선정되었던 파발리 움파넨의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시리즈의 두 번째 음반. 1804년에서 1806년 사이에 완성된 Op.10의 세 소나타(5,6,7번)과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소나타들인 21번 '발트슈타인'과 23번 '열정', 그리고 이웃한 두 인기작의 그늘에 가려진 소나타 22번을 함께 담았다.

ODE1237-5 **[Hybrid-SACD]**
젬린스키: 인어공주/ 신포니에타
Joh Storgards/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

젬린스키는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명 동화를 소재로 매력적인 관현악 환상곡인 '인어공주'를 완성하였다. 그는 초연에 앞서서 작품의 상당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하였는데, 본 신보에는 오리지널 무삭제 스코어에 기초한 새로운 에디션이 세계최초로 레코딩되었다. 작곡가 만년의 대표 관현악곡인 신포니에타는 롤란드 프라이시처가 편곡한 챔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수록하였다.

ODE1260-2D
시벨리우스: 혼성합창을 위한 작품 전곡
Heikki Seppanen/ Estonian Philharmonic Chamber Choir

시벨리우스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혼성합창을 위한 작곡가의 작품 전체를 수록한 본 신보가 출시되었다. 핀란드의 국민서사시인 카레발라에 기초한 초기 합창곡들부터 각종 행사를 위해 완성된 합창곡들, 캐럴을 비롯한 종교합창곡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동명 교향시에 삽입되어 우리 귀에 익숙한 핀란디아 찬가를 F장조와 Ab장조로 각각 수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Dyna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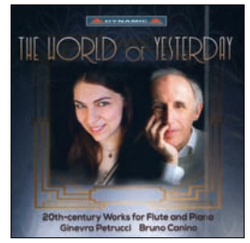
www.dynamic.it

CDS 7667
텔레만: 트리오 소나타
파비오 비온디(바이올린), 트리플라 콩코르디아

열정적인 비온디와 품격 높은 카바산티의 환상적인 앙상블텔레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놀랍게도 그의 모든 곡이 고른 완성도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트리오 소나타는 단연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특히 이 음반은 과감하고 열정적인 파비오 비온디와, 성자와 같이 품격 있는 로렌초 카바산티가 앙상블을 이루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양극단의 스타일을 갖는 바이올린과 리코더는 놀랍게도 서로를 보완하며 아름다운 하나가 되며, 두 악기를 보좌하는 첼로와 하프시코드의 콘티누오는 앙상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CDS 7704
보케리니: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 Op. 15
알레아 앙상블

시대악기로 고전음악의 풍미를 한껏 표현한 보케리니의 사중주곡보케리니는 하이든과 모차르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고전음악의 선구자였다. 또한 다양한 지시어를 사용하고 반음계를 실험하는 등 진정한 개척자이기도 했다.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 Op. 15'는 보케리니가 29세 때였던 1772년에 출판된 곡으로, 하이든의 첫 현악사중주보다도 9년이나 앞서있다. 극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표현에 탄탄한 대위법적 구성 등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알레아 앙상블은 고음악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사중주단으로, 음 하나하나마다 고전음악의 아름다운 풍미가 한가득 피어난다.



CDS 7716
피에르네: 소나타
카르크-엘러트: 점묘적 모음곡
다마즈: 변주곡 등
지네브라 페트루치(플루트), 브루노 카니노(피아노)

21세기에 각광받고 있는 화려한 20세기 낭만 플루트 음악20세기는 낭만과 실험이 공존하던 시대였지만, 요즘에는 낭만의 연장선상에 있는 화려한 음악들이 각광받고 있다. '어제의 세계'라는 이 음반의 주제는 바로 20세기의 낭만이다. 드뷔시와 스트라빈스키를 지지했던 피에르네의 '소나타'는 인상주의적인 아우라가 깃들어있으며, 다마즈의 '변주곡'은 풀렝크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유머가 엿보인다. 35세로 요절한 천재 작곡가 플라티의 '소나타'는 20세기 초 이탈리아를 물들인 프랑스 음악의 영향이 진하게 배어있으며, 카르크-엘러트의 '점묘적 모음곡'은 점묘법으로 유명한 화가 쇠라의 그림처럼 화사하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 92185
차피: 현악사중주 1, 2번
라틴아메리카 사중주단

사라수엘라의 거장이 들려주는 스페인 낭만의 대표적인 사중주곡19세기 후반의 전재적인 스페인 작곡가인 루베르토 차피는 스페인의 대중적인 음악극 장르인 사라수엘라의 거장으로, 말년에 몇 곡의 실내악곡을 남겼다. 이 중 네 곡의 현악사중주는 차피의 걸작일 뿐만 아니라, 스페인 낭만음악을 대표하는 실내악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미 최고의 현악사중주단인 라틴아메리카 사중주단은 이 중 1번과 2번을 연주했다. 경쾌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이 사라수엘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며, 피치카토와 반복구, 짧은 제스쳐 등 연극적이고 무곡적인 강렬한 표현 요소로 시종일관 흥미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DSL 92186 **[BCD + Blu-ray Pure Audio]**
카푸스틴, 피니, 워커: 비올라 소나타 등
엘리샤 넬슨(비올라), 제임스 하우스먼(피아노)

2010년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된 정상급 비올리스트의 포효우리시대에 재발견된 가장 열정적인 악기는 바로 비올라이다!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음반을 들어보라. 카푸스틴의 '비올라 소나타'가 들려주는 재즈 풍의 거친 리듬감, 존 맥롤린 윌리엄스의 무반주 비올라를 위한 '두 개의 작품'이 그리는 바흐에 대한 예찬, 로스 리 피니의 '비올라 소나타 2번'에 담긴 미국적 서정미와 당돌한 표현, 제프리 멈포드의 '천천히 가기'에 한껏 내재된 에너지, 조지 워커의 '비올라 소나타'가 가진 현대적 매력 등, 이 한 장의 음반은 한 때는 평온하게, 한 때는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며 비올라의 열정을 들려준다.

Paladino
www.paladino.at

PMR 0050
모차르트: 마술피리, 두 개의 이중주, 미뉴엣 K1 등 초기작품
에릭 램(플루트), 마틴 루멜(첼로)

첼로의 풍부한 저음과 플루트의 원초적인 음색의 완벽한 조화
플루트와 첼로 두 악기가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풍부한 저음을 가진 첼로의 음색과 자유롭게 유영하는 플루트의 원초적인 음색을 최고의 하모니로 결합시킨 주인공은 바로 에릭 램과 마틴 루멜이다. 모차르트를 편곡한 이 음반은 아치형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의 두 곡을 묶어 처음과 끝에 배치했으며, 두 개의 이중주가 그 안쪽에, 그리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K1을 포함하여 어렸을 때의 작품들이 중앙을 채우고 있다. 마치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듯하다.

PMR 0060
크반츠: 여덟 개의 광시곡 등 무반주 플루트 작품
에릭 램(플루트)

단선율 악기인 플루트만으로 만든 마법과 같이 완전한 음악
크반츠는 18세기 중엽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대한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였다. 그는 자신과 프리드리히 대왕을 위해 수많은 플루트 곡을 작곡했으며, 오늘날에도 플루트 테크닉의 정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되어있는 크반츠의 플루트 작품들은 모두 무반주곡들로, 단선율로 화성을 만들기 위한 빠른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그런 만큼 플루트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기교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마법과 같이 완전한 음악을 만든다. 에릭 램의 기교는 완벽하며, 뛰어난 음악적 해석력으로 크반츠의 예술성을 한껏 끌어올렸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6.220625 [Hybrid-SACD]
닐센: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
Alan Gilbert/ New York Philharmonic

교향곡 5번과 6번을 담은 이번 신보를 마지막으로 앨런 길버트와 뉴욕 필의 닐센 교향곡 시리즈가 완결되었다. 길버트는 교향곡 5번에 담긴 몽환적이고도 격정적인 몸보림과 교향곡 6번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아이러니를 놀라운 직관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대담하고 기운찬 닐센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이클이 바로 이것이다." – Classicstoday.com 10/10

Capriccio
www.capriccio.at

C 5239
드뷔시: 현악사중주
아데스: 아르카디아나
라벨: 현악사중주
Signum Quartett

드뷔시와 라벨은 각각 한 편의 현악사중주를 완성하였지만, 프랑크의 영향과 자신의 인상주의적인 색채를 함께 드러내는 드뷔시의 작품과 프랑스 모더니즘의 방향성을 제시한 라벨의 작품 모두 19/20세기 전환기를 대표하는 실내악 걸작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영국의 젊은 세대 작곡가들을 대표하는 토마스 아데스의 현악사중주를 위한 독특한 작품인 '아르카디아나'가 함께 수록되었다.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6.220610 [Hybrid-SACD]
코렐리: 바이올린소나타 Op.5 nos.7-12 (리코더 편곡)
Michala Petri(rec)/ Mahan Esfahani(cemb)

12개의 바이올린소나타들로 구성된 코렐리의 Op.5는 바로크 바이올린 레프트와의 금자탑으로 오늘날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덴마크가 배출한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는 바이올린이 아닌 리코드의 청명한 소노러티로 이 위대한 작품집에 도전하였다. 본 신보에는 유명한 '라 폴리아'를 포함하여 Op.5의 후반 여섯 작품이 수록되었다. 리코더와 하프시코드의 맑고 투명한 소리 조합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 218
색소폰 쿼텟을 위한 음악 (거쉰, 피아졸라, 바흐, 바일 외)
Clair-Obscur Saxophone Quartet

아르헨티나 탱고 누오보의 상징적인 작품이자 피아졸라의 최고 인기작인 '리베르탱고', 거쉰의 출세작 '랩소디 인 블루', JS 바흐의 건반독주곡인 '이탈리아협주곡', 쿠르트 바일의 크로스오버적인 걸작 '서푼짜리 오페라'의 발췌, 뉴욕 출신의 젊은 작곡가 아리 벤저민 메이어스의 '뉴욕의 베크만'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4개의 색소폰이 만들어내는 관능적인 음색을 통해 새록운 매력을 드러낸다.

Seattle Symphony
www.seattlesymphony.org

SSM 1005
라스카토프: 밤의 나비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무카이야마 도모코(피아노),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뤼도빅 모를로(지휘)

환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두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
들라스카토프는 기돈 크레머가 연주하면서 잘 알려졌고, 슈니트케의 마지막 교향곡을 완성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세기 말 소련 작곡가들의 암울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리듬과 화려한 움직임에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한다. 2013년작 피아노 협주곡 〈밤의 나비〉는 어느 날 밤 온실에 찾아들어온 나비를 보고 작곡되었다. 요정을 상징하는 다양한 음색 속에, 나비를 상징하는 피아노와 인성의 제스쳐는 만화경과 같은 환상적인 장면으로 빠져들게 한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목관의 투명한 뒤엉킴과 우아한 현악으로 또다른 환상으로 이끈다.

Orlando
www.orlando-records.com

OR 0012
Night Thoughts – 무반주 클라리넷 독주곡 모음
디미트리 아쉬케나지(클라리넷)

디미트리에게 특별한 20세기 작품이자 무반주 독주곡들
디미트리 아쉬케나지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낭만적인 클라리네티스트이다. 이 음반은 디미트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20세기 작품이자 무반주 독주곡으로, 매우 특별한 앨범이다. 그는 이 앨범을 위해 현대적인 감각과 함께 낭만적인 감수성을 아우르는 곡들로 신중하게 선택했다. 영화음악으로 유명한 리차드 로드니 베넷과 헐리우드의 거장 미클로슈 로자의 〈소나티나〉는 현대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수작들이며, 폴 하비의 〈세 개의 거슈윈 연습곡〉은 20세기 초 재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Gramola

www.gramola.at

Gramola 99022 **[베스트추천음반]**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로망스, 유모레스크, 소나티나 등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프라하 필하모니아, 페트르 알트리히터(지휘), 파벨 카슈파르(피아노)

드보르작이 바이올린으로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 토마스 이른버르거가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작품에 대한 탁월한 연주력을 과시했다. 또한 프라하 필하모니아와 함께 함으로써 드보르작의 지역적 정서를 담으려고 의도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른베르거는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규모 있는 대작에 어울리는 폭넓은 극적 표현력을 발휘하며, '로망스'는 한 편의 낭만시를 읊듯 깊은 감수성으로 노래한다. 이외에도 유명한 '유모레스크'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주레크', '소나티나'가 수록되어 드보르작이 바이올린으로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폭넓게 만날 수 있다.

Gramola 99030

모차르트: 소나타 11번(터키 행진곡), 소나타 14번 등

잉그리트 마르소너(피아노)

고전 음악 연주에 명성을 얻고 있는 마르소너의 감성적인 연주

잉그리트 마르소너는 고전 작품 연주에 탁월한 해석을 인정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스타인웨이 콩쿨과 빈 청소년 콩쿨 등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연주자이다.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한 이 음반은 마르소너의 뛰어난 음악적 영감을 잘 드러낸다. 유명한 '터키 행진곡'이 포함된 '소나타 11번'은 사색적인 감성을 가슴 깊이 감동으로 전달하고, '소나타 14번'은 가볍고 투명한 음색으로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음악적 감각을 표현해낸다. '환상곡 C단조'는 모차르트의 단조 작품에 주로 나타나는 깊은 비애를 섬세하게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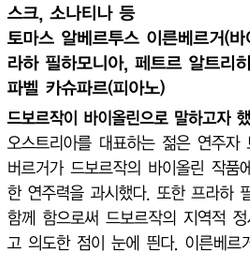
Gramola 99046

빈 왈츠의 전문가들

마리알레나 페르난데스, 란코 마르코비치(피아노)

일생 동안 기억에 남는 단 하나의 독특한 왈츠 앨범!

왈츠만큼이나 즐겁게 하는 춤이 있을까! 빈 음대 교수인 페르난데스와 취리히 예술학교 학장인 마르코비치는 다양한 왈츠 작품들을 포핸즈로 연주했다. 타이틀은 '빈 왈츠 전문가'라고 되어있지만,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사티, 림 등 오스트리아인 아닌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빈 왈츠의 활달한 분위기가 느껴지면서도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의 기풍이 녹아있다. 요한 슈트라우스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2세가 아닌 아버지 1세이다.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독특한 왈츠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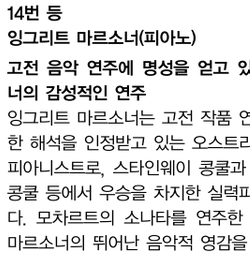


Gramola 99048

쇼팽, 슈만, 칙 코리아,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집 Guitar4mation

피부에 와 닿는 쇼팽, 신비로운 리듬의 코리아, 브라질의 영혼이 공존하는 세계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사중주단 Guitar4mation은 오스트리아와 폴라드, 체코 등 여러 나라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런 만큼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쇼팽의 네 곡의 전주곡은 쇼팽의 정취를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감성적이며, 슈만의 연습곡은 본래 기타곡으로 착각할 정도로 훌륭하다. 그런데 이 두 곡 사이에 칙 코리아와 펫 메스니도 만날 수 있다. 코리아의 신비로운 리듬과 화음, 메스니의 아름다운 선율은 이 음반의 화룡점정이다. 파스코알, 지스몬티, 조빔 등 브라질의 영혼들과도 조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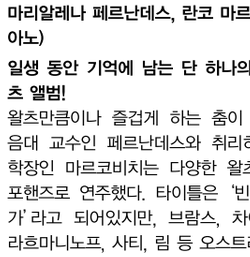
Gramola 99054

브루크너: 교향곡 8번

오버외스터라이히 청소년 관현악단, 레미 발로(지휘)

브루크너가 '신비'라고 불렀던 이유를 깨닫게 하는 중후한 사운드

브루크너가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던 성 플로리안의 성당에서는 1997년부터 '브루크너 주간'이라는 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첼리비다케의 제자인 레미 발로는 2011년부터 이 음악제에서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오버외스터라이히 청소년 관현악단과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을 연주했다. 브루크너는 자신의 곡은 느리게 연주해야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발로는 〈교향곡 8번〉을 90분을 훌쩍 넘기고 있다.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중후한 사운드에서 브루크너 자신이 이 교향곡을 '신비'라고 불렀던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



Gramola 99055

슈만: 시인의 사랑 등 모차르트와 볼프의 가곡

송시원(바리톤), 헬무트 도이치(피아노)

스승과 제자가 만든 최고의 무대

송시원은 2013년에 학생 리트 콩쿨에서 우승과 함께 청중상까지 거머쥐며 유럽 무대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송시원은 이 음반에서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비롯하여 모차르트, 볼프 등 독일 정통 가곡을 정상급 반주자 헬무트 도이치와 함께 녹음했다. 도이치는 뮌헨 음악학교에서 송시원을 가르친 스승으로, 스승이 직접 반주를 맡음으로써 제자의 뛰어난 실력과 유럽에서의 인지도를 증명한다. 송시원은 따뜻하고 두터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음성을 지닌 바리톤으로, 리트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각 작품의 위트를 잘 살려내는 탁월한 연주를 들려준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Gramola 99058

슈만: 크라이슬러리아나, 어린이 정경, 두 개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도라 델리스카(피아노)

낭만음악의 깊은 감수성을 이끌어낸 데 탁월한 능력이 발휘된 델리스카의 슈만

도라 델리스카는 낭만음악의 깊은 감수성을 이끌어낸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로, 슈만의 작품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최고로 발휘되었다. 기교적인 측면이 강한 '크라이슬러리아나'는 분주한 음들 가운데서도 음악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화려하면서도 음악적 무게를 놓지 않는 거장다운 면모를 보인다. '어린이 정경'에서는 델리스카의 깊은 낭만적 감수성에 매료될 것이다. 부드러운 음색은 과거를 추억하는 듯하며, 섬세한 터치로 한 음 한 음이 영롱하게 울린다. 델리스카의 연주력은 '파가니니 연습곡'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30038

쇼팽: 발라드 1, 3, 4번, 폴로네즈 환상곡, 볼레로 등

앤드루 란젤(피아노)

거장의 손길에서 드러나는 쇼팽의 낭만적 분위기와 서정적 내러티브

앤드루 란젤은 말로 상과 애버리 피셔 캐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했으며, 마트머스, 미들베리, 터프츠 대학 등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의 쇼팽 연주는 큰 호평을 얻고 있으며, 그라모폰으로부터 "다양성과 복잡성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음반은 쇼팽의 발라드 1, 3, 4번과 '폴로네즈 환상곡', '볼레로' 등을 수록하고 있다. 란젤의 연주는 내면적인 성찰이 돋보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쇼팽의 낭만적 분위기와 서정적 내러티브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강한 흡인력으로 감상자를 집중하도록 이끈다.

30046

바흐: 여섯 개의 프랑스 모음곡

세르게이 셰프킨(피아노)

바흐 예술의 숭고함과 바흐에 대한 세프킨의 존경심이 어우러진 명연

소콜로프의 제자이자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인 세르게이 셰프킨은 미국에서 손꼽는 바흐 전문가이다. 셰프킨은 역사적 해석과 연주 관습에도 정통한 연주자로, 현재 바흐의 건반 작품을 현대피아노로 연주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섯 개의 '프랑스 모음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그 일환으로, 바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우아하면서도 감정이 절제된 멜로디와 걸음을 걷는 듯 정갈한 리듬은 바흐 예술의 숭고함을 느끼게 하며, 각 성부 간의 완벽한 균형과 최적의 다이나믹은 바흐에 대한 세프킨의 존경심을 전달한다.

STEINWAY & SONS 30033

바흐의 예술: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마태 수난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그레그 앤더슨, 엘리자베스 조이 로우(피아노)

흠 없는 기교와 심오한 예술 세계를 이룩한 역동적인 연주

"우리 세대의 가장 역동적인 두오" (샌프란시스코 클래식 보이스)
"천재들의 집중력 있는 일치" (서드코스트 다이제스트)
앤더슨&로우에게 쏟아지는 찬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바흐의 협주곡과 푸가의 예술, 마태 수난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피아노 이중주로 편곡하여 연주한 이 음반은 이들의 흠 없는 기교와 심오한 예술 세계를 충분히 보여준다. 특히 마태수난곡은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감으로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은 보다 강한 응집력으로 다이나믹한 음악으로 재창조되었다.

STEINWAY & SONS 30049

블로흐: 셀로모, 세 개의 유태인의 시 / 뮬리: 첼로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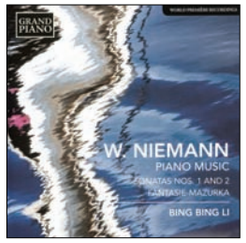
쥘 베일리(첼로),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윤 메르클(지휘)

최고의 스타 첼리스트 쥘 베일리 주연의 두 개의 음악극

블로흐는 유태인 전통음악의 영향을 받은 작곡가로, '셀로모'는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힌다. '솔로몬'을 뜻하는 '셀로모'는 구약성서 '전도서' 1장을 음악화한 작품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스타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인 쥘 베일리는 현란한 음색으로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함축적인 메시지를 품은 서사적인 멜로디를 들려준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작곡가 뮬리는 화려한 음색과 현대적인 화음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첼로 협주곡' 역시 상징적인 현대 연극을 보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작품이다.

Grand Piano

www.grandpiano.org



GP662 **[세계 최초 녹음]**
발터 니만: 피아노 소나타 1, 2번, 세 개의 작품, 마주르카 환상곡
리빙빙(피아노)

후기낭만의 열정적인 에너지와 신비롭고 섬세한 표현력

리빙빙은 8세 때에 중국 길림성에서 '미래의 스타' 상을 받았으며, 10세 때에 중국 피아노 콩쿨에서 우승했다. 14세에 영국 퍼셀 스쿨과 왕립 음악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했으며, 현재 스코틀랜드 왕립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녀가 이 음반에서 연주한 독일의 발터 니만은 당대에 학자와 피아니스트, 작곡가로 큰 명성을 얻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잊혀졌다. 니만의 작품들은 후기낭만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품으면서 섬세하고 신비로운 표현력을 갖추고 있으며, 밀도 있는 사운드로 감상자를 강하게 집중시키는 강렬한 매력이 있다.

GP673
하차투리안: 토카타, 피아노 소나타, 시, '스파르타쿠스'의 아다지오 등
카리네 포고시안(피아노)

구 소련 최고의 거장 하차투리안의 감각적이고 리듬감 넘치는 피아노 걸작

카리네 포고시안은 아르메니아 태생으로, 고국에서 공부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맨하탄 음대에서 공부했다. 현재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맨하탄 음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고국의 거장 아람 하차투리안의 피아노 작품을 녹음했다. 하차투리안은 아르메니아의 토속적인 리듬과 민요풍의 음계를 활용한 선율로 활력 넘치는 음악을 만들었다. 포고시안은 아르메니아인으로서 하차투리안의 민속적인 특징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며, 독특한 리듬감을 들려준다. 또한 섬세한 터치와 유려한 선율 처리로 세련된 사운드를 입혔다.

GP680 **[세계 최초 녹음]**
반할: 세 개의 광시곡 Op. 31, 세 개의 광시곡 Op. 36
마이클 찰카(피아노)

18세기 후반 빈악파 고전음악의 진수를 듣다

마이클 찰카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등 옛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스톡홀름 릴라 음악원에서 초기 건반악기를 가르치는 등, 바로크와 고전의 건반음악 전문가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18세기 후반 빈에서 활약한 체코 출신의 요한 반할을 연주하여, 빈악파 고전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여섯 개의 광시곡들은 1780년대에 작곡된 곡들로, 반할의 넘치는 영감과 감각적인 즉흥적 요소가 가득하다. 또한 빈악파의 전형적인 음악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현악적인 음향으로 확장되어있다.

GP696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라벨: 라 발스,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에릭 페랑-엔카와(피아노)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작곡가들의 걸작을 피아노로 듣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에릭 페랑-엔카와는 14세에 국립고등음악원에서 피아노 1등상을 받았으며, 실내악 분야에서도 1등상을 받았다. 클라라 하스킬 콩쿨과 산탄데르 콩쿨에서 우승하는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추었다. 그가 이 음반에서 연주한 스트라빈스키의 세기적 출세작 '봄의 제전'의 피아노 편곡판은 다양한 성부들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관현악 못지않은 풍부하고 다양한 음의 세계를 들려준다. 라벨의 '라 발스'는 소리 덩어리들의 육중한 움직임들이 압도한다. 거슈윈의 작품들은 생동감 있는 다이나믹으로 활력있는 재즈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GP697 **[세계 최초 녹음]**
솔랄: 아나톨리로의 여행, 재즈 전주곡, 11개의 연습곡, 연주용 연습곡, 발라드
에릭 페랑-엔카와, 마르샬 솔랄(피아노)

유럽 재즈의 살아있는 전설이 남긴 피아노 작품, 직접 연주한 발라드 수록

마르샬 솔랄은 유럽 재즈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피아노를 위한 색채감 있고 창조적인 작품들을 남겼으며, 이 작품들은 어떠한 하나의 장르로 묶을 수 없는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다. '아나톨리로의 여행'은 열세 개의 변주가 연결된 곡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패시지로 재즈를 탐색하는 곡이며, '재즈 전주곡'과 '11개의 연습곡'은 톡톡 튀는 화음들이 돋보인다. '연주용 연습곡'은 재즈의 다양한 즉흥연주 기법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발라드'에서는 솔랄이 직접 제1 피아노를 연주한다.

GP654 **[세계 최초 녹음]**
라프: 대 소나타, 잎사귀와 꽃
뜨라 응우앤(피아노)

독일 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한 위대한 소나타

요아힘 라프는 멘델스존의 추천으로 악보를 출판했으며, 슈만이 자신의 음악저널에 격찬하면서 음악계에 알려졌다. 그의 음악은 독일 음악의 전통을 이어받은 형식미와 절제된 감수성으로 완벽한 건축물과 같다. 뜨라 응우앤은 라프의 피아노 전곡 녹음으로 그의 음악세계를 조망하고 있다. '대 소나타'는 59세 때의 작품으로,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과 고전풍의 형식, 그리고 낭만적인 다이나믹으로 시대를 초월한 독일 음악의 집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4세 때의 작품인 '잎사귀와 꽃'은 다양한 식물을 음악으로 표현한 정감어린 소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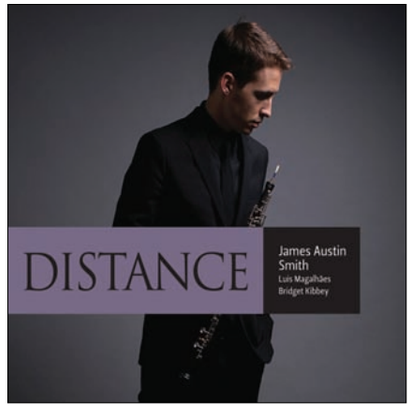
Grand Piano GP669
사마죄유: '바다의 노래' 등 피아노 전곡집
올리비에 쇼쥐(피아노)

드뷔시 이후 가장 인상주의적인 작곡가가 들려주는 피아노의 수채화

라벨과 친구였던 귀스타브 사마죄유는 당시 파리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피아니스트였다. 그의 음악은 드뷔시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보다 강렬한 호소력을 더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피아노 모음곡'은 25세 때의 작품으로, 인상주의적 음향과 쇼팽 풍의 멜로디가 여러 층으로 겹쳐 새로운 사운드를 들려주며, 41세 때의 작품인 '바다의 노래' 보다 완숙한 어법으로 피아노로부터 다양한 음색을 이끌어내면서 진지한 무게감으로 압도한다. 자유롭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가진 67세의 작품인 '스케치'는 미혹적인 미로로 안내한다.

Two Pianists

www.twopianists.com



TP 1039183
바흐와 힌데미트의 오보에 소나타 등
제임스 오스틴 스미스(오보에), 루이스 마갈량에스(피아노), 브릿지 키비(하프)

"감동적이고 화려한 연주"(뉴욕 타임즈), "과감하고 선명한 사운드"(뉴요커)

오보이스트 제임스 오스틴 스미스는 "감동적이고 화려한 연주"(뉴욕 타임즈), "과감하고 선명한 사운드"(뉴요커)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는 독주와 함께 다양한 실내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맨하탄 음대와 뉴욕 주립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음반은 바로크부터 낭만과 근현대로 가로지르는 프로그램으로 오보에 음악의 진수를 들려주고 있다. 바흐의 〈소나타〉는 정갈한 오보에와 우아한 하프가 이채롭게 조화를 이루며, 슈만의 소품은 산들바람과 같이 자연스럽게 들려온다. 힌데미트의 〈오보에 소나타〉는 근현대 특유의 음악적 유머가 넘친다.

Rondeau

www.rondeau.de

ROP6106

오케검:
무장한 남자 미사
앙상블 누스미도

오케검과 15세기 르네상스 작곡가들의 보컬과 기악 음악의 향연

앙상블 누스미도는 네 명의 보컬앙상블이지만, 르네상스 기악앙상블이기도 하다. 이 단체는 중세와 르네상스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며, 당시 사용되던 악보로 연주하여 원곡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 오케검의 '무장한 남자 미사'를 수록한 이 음반에서 이 앙상블의 모든 것, 또한 르네상스 음악의 성악과 기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또한 매혹적인 미성과 균형 잡힌 앙상블로 오케검의 미사곡을 통해 천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아그리콜라와 뷔스누아, 모튼 등의 플루트와 리코더 앙상블 곡을 삽입하여 르네상스 음악의 절정을 펼친다.

MD&G

www.mdg.de

610 1852-2
색소폰 시네마
Milan Turkovic/ Selmer Saxharmonic

소프라니노 색소폰에서 베이스 색소폰에 이르는 다양한 음역의 색소폰 주자 12명으로 구성된 젤머 색스하모닉이 자신들의 독특한 소노러티를 활용한 멋진 영화음악 음반을 완성하였다.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한스 짐머의 '카리브의 해적', 헨리 맨시니의 '핑크 팬더', 엔리오 모리코네의 '옛날 옛적 서부에서', 스비리도프의 '폭풍', 존 배리의 '늑대와의 춤을', 버나드 헤르만의 '사이코' 등등을 수록.

307 1860-2
하이든: 현악사중주 Op.77-1,2, Op.103, Op. 42
Leipzig Stiring Quartet

독일을 대표하는 중견 실내악단인 라이프치히 쿼텟의 하이든 현악사중주 시리즈는 평단의 호평과 함께 지금까지 순항 중에 있다. 시리즈의 7번째 음반인 본 신보에는 베토벤의 초기 사중주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로프코비츠 사중주' Op.77의 두 작품(66번과 67번)과 작곡가 최후의 미완성 사중주인 Op.103(68번), 하이든 실내악의 전형을 담은 Op.42(43번)이 수록되었다.

309 0508-2
리히터: 협주곡과 실내악
Musica Alta Ripa

프란츠 크사버 리히터(1709-89)는 요한 슈타미츠와 더불어 만하임 악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으며, 초기 교향곡 양식의 정립에도 한 몫을 했다. 한동안 카탈로그에서 사라졌다가 재발매된 이 음반에는 정갈한 매력을 담은 플루트협주곡과 오보에협주곡, 초기 교향곡의 전형과도 같은 신포니아 G장조, 그리고 바로크시대의 잔영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두 편의 실내악이 함께 수록되었다.

930 1861-6 **[Hybrid-SACD]**
베토벤: 교향곡 7번/ 대푸가 (피아노 듀오를 위한 편곡)
Piano Duo Trenkner & Speidel

베토벤 교향곡들의 피아노 편곡은 리스트의 작업이 워낙 유명하지만, 낭만시대 여러 피아노 비르투오조들도 저마다의 편곡을 남겼다. 신보에 수록된 것은 독일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프란츠 샤르벤카가 작곡가의 가장 리드미컬한 교향곡인 7번을 피아노 연탄을 위해 편곡한 버전이다. 그와 함께 베토벤 자신이 역시 피아노 연탄을 위해 편곡한 그로스푸가 Op.134가 함께 수록되었다.

937 1863-6 **[Hybrid-SACD]**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Stefan Blunier/ Beethoven Orchester Bonn

슈테판 블루니어와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라벨의 '다프니스와 클로에'에 도전하였다. 디아길레프의 발레 뤼스를 위한 이 작품은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라벨 특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작곡가 스스로 ' 파트로 구성된 안무를 수반한 교향곡'이라고 평하기도 했던 작품이다. MDG가 자랑하는 멀티채널 레코딩이 이 작품의 화려함을 한층 더 강조한다.

903 1862-6 **[Hybrid-SACD]**
슈타미츠: 바이올린소나타 Op.6
Stefan Schardt(vn)/ Michael Behringer(pf)

요한 슈타미츠는 초기 고전시대, '장군들의 군대'라고 불렸던 만하임 궁정 오케스트라의 주요 멤버였으며, 독일 바이올린 악파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그가 죽은 뒤에 출판된 바이올린소나타 Op.6의 여섯 소나타들은 화려한 초절기교와 더불어 고전시대 특유의 간결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텔레만의 바이올린소나타로 2014년 Echo Klassik을 수상했던 슈테판 샤르트가 연주를 맡았다.

912 1866-6 **[Hybrid-SACD]**
모 차 르 트 : 피 아 노 소 나 타 KV.457/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Op.111/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D.840
Claudius Tanski(pf)

독일의 실력파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우스 탄스키는 연주자로 활동함과 동시에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명 피아노교사이기도 하다. 신보에는 모차르트가 남긴 유이한 단조 피아노소나타의 하나인 KV.457과 베토벤 최후의 소나타인 32번 Op.111, 그리고 슈베르트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아서 '유물'이라는 별명을 지는 D.840이 함께 수록되었다.

937 1883-6 **[Hybrid-SACD]**
베토벤: 교향곡 6, 8번
Stefan Blunier/ Beethoven Orchester Bonn

교향곡 1번과 5번을 함께 담았던 시리즈의 첫 출시작에 이어서, 슈테판 블루니어가 이끄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사이클의 두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시대악기 연주나 이른바 절충주의에 입각한 연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와 달리 이들은 교향곡 6번과 교향곡 8번 모두에서 여유로운 흐름과 풍성한 소노러티로 한 시대 이전의 예스런 감흥을 충실히 재현해 내고 있다.

TAC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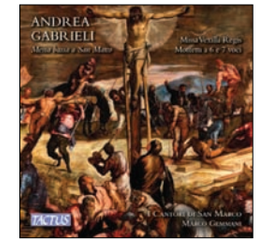
www.tactus.it

904 1871-6 **[Hybrid-SACD]**
샤미나드: 소나타와 에튀드
Johann Blanchard(pf)

세실 샤미나드(1857-1944)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명 피아니스트였으며, 여류 작곡가로서는 최초로 레종도뇌를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당대 프랑스 음악계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다. 베토벤과 브람스의 전통을 계승한 피아노소나타와 연주자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화려한 에튀드들이 함께 수록되었는데, 특히 그의 에튀드들은 각각의 성격에 걸맞은 표제들을 달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TC 590004
비발디: 칸타타 '그만 두어라', '아모르여', 마리니: 파사칼리아 등
주세피나 브리델리(메조소프라노), 파비오 메사지아(바이올린), 이 무지칼리 아페티
비발디와 마리니가 머물렀던 빈첸차의 역사적 장소에서 연주하는 영상물

비발디가 1713년에 연주회를 열었던 빈첸차의 '오토네 디 빌라'에서 녹화한 것으로, 오페라와 같이 극적이며 격렬한 칸타타 '그만 두어라, 이제 그만 두어라'와 '아모르여, 당신이 이겼다'를 수록했다. 함께 수록되어있는 비안조 마리니는 1655년에 1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빈첸차 성당의 카펠마이스터를 지냈다. 이 기간 동안에 '작품 22'를 작곡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파사칼리아'가 수록되었다. 작품 8에 포함된 두 곡의 소나타도 함께 수록했는데, 흣날 비버에게 변칙조율과 이중음 기법으로 영향을 준 중요한 작품이다. 영상물로 제작되어 흥미를 더한다.



TC 830301 **[세계 최초 녹음]**
카라미엘로: 베르디와 벨리니, 로시니의 오페라 환상곡
레티치아 벨몬도(하프), 졸트 체트너(피아노)
하프의 영롱한 음색과 함께 아리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음반

레티치아 벨몬도는 아바도가 이끄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참여했으며, 현재는 로잔 음악원에서 하프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가 연주한 지오바니 카라미엘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밀라노의 대표적인 하피스트이자 작곡가로, 이 음반에서는 베르디와 벨리니, 로시니의 유명한 오페라를 환상곡으로 편곡한 작품들을 연주했다. 당시 오페라 환상곡은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많이 작곡되었지만, 하프 편곡은 흔치 않았다. 하프의 영롱한 음색과 함께 벨칸토 아리아 선율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음반이다.

TC 840001 **[세계 최초 녹음]**
피렌체의 만돌린 앙상블 음악
앙상블 다 카메라 지노 네리, 조르조 파브리(지휘)
밝고 경쾌하며 기분을 고양시키는 흥미로운 만돌린 합주곡

'앙상블 다 카메라 지노 네리'는 1898년에 설립된 페라라의 지노 네리 플렉트룸 오케스트라에 속한 합주단이다. 이 앙상블은 기타 피크와 같은 플렉트룸으로 연주하는 악기(만돌린, 기타, 하프 등)를 위해 작곡된 오리지널 작품들을 발굴하고 연주하는 단체로, 1999년 사르토리 국제 콩쿨에서 우승하여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다. 이 음반은 19세기 말 피렌체에서 명성을 얻었던 무니에르와 비안키, 마루첼리, 벨레기, 그라치아니-발터 등 다섯 작곡가의 앙상블 작품들을 수록했다. 밝고 경쾌하며 기분을 고양시키는 춤곡 스타일의 흥미로운 음악들로 가득하다.

TC 862706 **[세계 최초 녹음]**
보시: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 전곡
파올로 보르간티, 줄리오 주라토(피아노)
20세기 초 나폴리의 낭만 음악을 이끈 보시의 피아노 연탄곡

보르간티-주라토 피아노 두오는 외르크 데무스와 브루노 카니노 등 거장들로부터 지도를 받았으며, 여러 콩쿨에서 입상한 실력파 앙상블이다. 이들이 연주한 마르코 엔리코 보시는 나폴리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20세기 초 초창기 레코딩을 남겼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왈츠 모음곡'은 일곱 개의 소품들로 이루어진 곡으로, 경쾌하면서 고전적인 아우라를 갖춘 하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대관현악을 위한 모음곡'은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 연탄곡으로 편곡한 곡으로, 네 손을 통해 거대한 관현악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전달된다.

TC 920401 **[세계 최초 녹음]**
폴렝크: 글로리아, 베키아: 키리에와 글로리아 등
조바나 다미안(소프라노), 실비오 첼레긴(오르간), 스콜라 산 로코, 프란체스코 에블레(지휘)
오르간 반주로 연주한 폴렝크의 글로리아의 특별한 매력

프랑스 6인조의 일원이었던 폴렝크는 가벼운 살롱 음악을 많이 작곡했지만, 친구의 때 이른 죽음으로 종교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적인 종교음악인 '글로리아'는 위압적인 장중한 화음과 경쾌한 희유적인 선율이 결합되어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 음반은 특별히 볼팡고 베키아의 오르간 반주판을 수록하여 합창의 거대한 아름다움에 더욱 집중시켰다. 베키아의 오르간과 트럼펫, 합창을 위한 대규모 작품 '키리에와 글로리아'는 현대적이면서도 종교적 장면을 보는 듯 극적이다. '아뉴스 데이', '살베 레지나' 등 합창곡들도 흥미롭다.

TC 860301 **[세계 최초 녹음]**
칼라체: 만돌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전곡
세르조 치조티(만돌린), 파비아노 메를란테(기타)
전설적인 만돌린 거장 칼라체가 노래한 낭만적인 나폴리

치조티-메를란테 두오는 자코모 사르토리 국제 콩쿨 등 유수의 많은 콩쿨에서 우승한 유럽 정상급 연주자들이다. 이들이 연주한 라파엘레 칼라체는 약 200곡의 만돌린 작품을 남긴 나폴리 태생의 만돌린 거장으로, 이 음반에는 그의 만돌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전곡을 수록했다. '스페인의 춤', '폴로네이즈', '타란텔라', '마주르카', '살타렐로', '볼레로', '댄스 앨범' 등 경쾌한 춤곡들은 만돌린의 밝은 음색과 어울려 한껏 분위기를 고양시키며, '슬픈 세레나데', '뱃노래', '론도', '레티치아 행진곡' 등 만돌린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정서를 만끽할 수 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www.rcolive.com

RCO 14005 **[2CD + 카탈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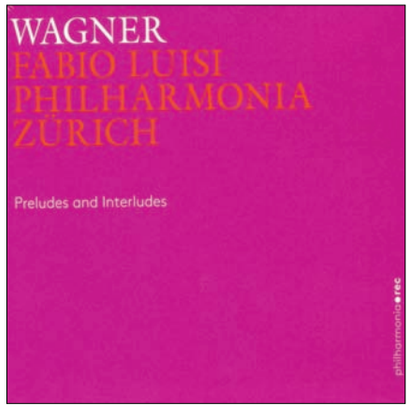
브루크너:
교향곡 6번, 7번
로얄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리듬과 낭만의 이상을 표현한 멜로디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은 브루크너 후기 교향곡의 시작을 알리는 곡으로, 브루크너 특유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으로 손꼽힌다. 교향곡 7번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중 가장 서정적이면서 중후한 작품으로, 2악장 주제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등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음반은 2012년에 있었던 마리스 얀손스와 RCO의 실황 연주로, '젊음'으로 대표되는 얀손스 사운드의 멋을 담아냈다. 에너지를 머금은 리듬은 강력한 생명력을 품고 있으며, 다양한 표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멜로디는 이상적인 낭만을 한껏 표현했다.

Philharmonia Records

www.philharmonia-records.com



PHR 0102 **[2CDs]**

바그너: 전주곡과 간주곡
필하모니아 취리히, 파비오 루이지(지휘)

초기 오페라의 서곡이 포함된 바그너의 유명한 관현악곡집

파비오 루이지와 그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필하모니아 취리히가 바그너의 전주곡과 간주곡들을 연주한 음반이다. 루이지는 음악의 구조를 탄탄하게 살리면서 밝은 음색으로 극적 표현을 만들어내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바그너의 장중한 무게감이 더해져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작품인 '요정'과 '사랑의 금지' 서곡이 포함되어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1세 때에 완성한 첫 오페라 '요정'은 바그너의 장중한 독일적 요소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다음 작품 '사랑의 금지'는 오페라 부파적인 경쾌한 작품이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 90000 153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6번, 무소륵스키: 전시회의 그림
조지 페데리코 오소리오(피아노)

"지구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 명" (LA Times)

명쾌하면서도 진지하며, 가벼우면서도 장중하다. 서로 모순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오소리오의 피아노 연주는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는 평가에는 이러한 독창적인 해석력이 바탕에 있다.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 6번'의 복잡한 텍스쳐는 그의 손에서 저글링 묘기와 같이 회전하고, 무소륵스키의 '전시회의 그림'의 둔탁한 악구들은 오히려 오소리오의 특징과 장점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쇼스타코비치의 D단조 전주곡과 푸가에서는 깊은 저음 타건이 가슴을 두드린다.

Gothenburg Combo

www.gbgcombo.com

Combo CD 002

알베니스, 파야, 드뷔시, 브람스, 바흐 등 기타 이중주 연주
고텐부르크콤보 기타 듀오

바흐부터 알베니스, 드뷔시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놀라운 표현력

고텐부르크콤보 기타 듀오는 2004년 제13회 몽틀리마 국제 기타 듀오 콩쿠르에서 우승과 청중상을 거머쥔 실력파 연주자들이다. 이들은 바흐부터 알베니스, 드뷔시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알베니스의 '세르비야'와 '코르도바'는 스페인의 열정과 애수가 교차되는 스페인의 두 모습을 선명하게 들려주며, 파야의 '에스파냐의 춤 1번'은 열정적인 스페인 춤사위가 고텐부르크콤보의 명쾌한 음색과 잘 어울려 이 음반의 대표곡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드뷔시의 '달빛'과 '아라베스트 1번'에서는 완전히 색다른 공명 사운드를 들려준다.

Arco Diva

www.arcodiva.cz

아르코 디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고의 클래식 음악 음반을 발매해오고 있습니다. 이르지 바르타(첼로), 다나 블라호바(바이올린), 토마시 빈클라트(바이올린), 루치아 코프소바(바이올린), 얀 린다(트럼펫), 토마시 비셰크(피아노), 에벤 트리오, 시엠프레 누에보 기타 듀오, 마르티누 사중주단 등 체코의 뛰어난 음악가들과 함께 최신 녹음 기술인 DSD로 최상의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디바는 음반뿐만 아니라 정상급의 뛰어난 음악가들과 단체들을 소개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있으며, 말러가 태어난 비소치나 지역의 수도 이흘라바에서 말러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UP 0025-2 131

요제프 수크: 봄, 여름의 인상, 사랑의 노래 등
토마시 비셰크(피아노)

세련된 서유럽의 낭만음악과 아기자기한 민족적 선율의 조화

체코의 후기낭만음악을 대표하는 요제프 수크는 드보르작의 제자이자 사위로, 서유럽의 낭만적인 음악언어에 체코의 민족적 정서를 담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 음악은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작곡된 곡들로, 수크가 동경했던 브람스의 세련된 낭만주의 음악어법과 드보르작으로부터 영향 받은 아기자기한 선율이 수크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조화롭게 배합되어있다. 또한 수크의 아내이자 드보르작의 딸인 오틸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소박한 선율과 발랄하지만 수줍음이 느껴지는 리듬에 소녀와 같은 감수성이 배어있다.

UP 0117-2 231

수크, 푀르스터, 피비히: 미사곡집
프라하 카를 대학 합창단, 프라하 청소년 실내 앙상블, 블라디미르 옐리네크(지휘)

후기낭만시대를 살았던 세 명의 작곡가들의 삼인삼색 미사곡

체코의 후기낭만음악을 대표하는 요제프 수크와 동시대의 작곡가인 푀르스터와 피비히의 미사 음악을 수록했다. 수크는 브람스로 대표되는 독일의 낭만음악에 큰 영향을 받은 작곡가로, 불과 14세에 작곡한 '크르제초비츠카 미사'에서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푀르스터는 수크보다 15세 연상으로, 60대 중반에 작곡한 '글라골 미사'는 20세기 초 체코에 불었던 근대적인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피비히의 '미사 브레비스'는 차분한 선율과 소박한 화성으로 편안하고 종교적인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UP 0132-2 231

파가니니: 소나타 1, 4번 / 트루흘라르시: 두 개의 작품 등"
루치아 코프소바(바이올린), 토마시 호녜크(기타)

풍부한 음향과 우아한 표현으로 피어나는 파가니니의 새로운 매력

코프소바는 베토벤 흐라덱 콩쿠르와 야나체크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며, 호녜크 역시 기타라트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파 기타리스트이다. 이 두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 파가니니와 체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다. 파가니니의 소나타는 상당한 고음과 현란한 기교를 요구하지만, 코프소바는 풍부한 음향과 우아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트루흘라르시의 '두 개의 작품'에서는 강렬한 리듬의 춤곡과 서정적인 로망스를 들을 수 있으며, 노바크와 투차프스키는 현대적인 매력을 갖춘 수작이다.

UP 0133-2 211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13, 14번
마르티누 현악사중주단

드보르작 만년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마지막 현악사중주곡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곡은 '아메리카'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무려 14개의 현악사중주곡을 작곡할 만큼 이 장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드보르작 교향곡에는 민족적 색채를 가미한 데 반해, 현악사중주는 서유럽의 낭만음악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은 '아메리카' 이후에 작곡된 두 개의 마지막 현악사중주곡으로, 풍부한 화음과 독창적인 화성은 멘델스존과 브람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족적인 뉘앙스를 지울 수 없는 선율들은 드보르작의 거장적인 능력으로 세련되게 처리되었다.

UP 0143-2 211

스메타나: 피아노 삼중주, 말러: 피아노 사중주, 스케르초 스케치"
에벤 삼중주단

어린 딸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 완성된 낭만시대 실내악의 걸작

스메타나는 '나의 조국' 등으로 체코 민족음악의 불을 댕긴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는 독일의 낭만음악에 대해 정통했다. 베토벤과 슈만의 영향이 강한 '피아노 삼중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곡은 그의 딸 베드르지슈카가 네 살에 고열로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 작곡되어 스메타나의 예술가적 감수성 또한 깊게 배어있다. 함께 수록된 말러의 '피아노 사중주'에서 에벤 삼중주단은 뛰어난 해석으로 관현악과 같이 폭넓은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또한 이 곡과 관련된 곡이라고 여겨지는 스케르초 스케치까지 수록하여 더욱 매력적이다.

UP 0145-2 131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프로코피에프: 신포니에타
이르지 바르타(첼로), 체코 챔버 오케스트라, 레오시 스바로프스키(지휘)

차이코프스키의 원곡을 복원하여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연주

체코를 대표하는 유럽 정상의 첼리스트 이르지 바르타가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특별한 것이 있다. 대부분 연주되고 있는 버전은 초연했던 피첸하겐이 만든 것으로, 피첸하겐은 변주의 순서를 뒤바꾸고 제8변주를 삭제했다. 바르타는 차이코프스키의 원곡을 복원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전달하고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밀도가 높고 에너지가 충천한 그의 연주 또한 훌륭하다. 프로코피에프의 '신포니에타'는 본래 18세 때 작곡한 관현악곡으로, 후에 실내악 규모로 축소하여 집중도 높은 완숙한 작품으로 탈바꿈되었다.

UP 0146-2 131

드보르작: 로망스, 야나체크: 바이올린 소나타, 스메타나: 나의 조국으로부터
다나 블라호바(바이올린), 페트르 노우조브스키(첼로), 미로슬라프 세케라(피아노)

체코의 중견연주자들이 연주한 체코 중요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

체코의 중견연주자들이 모여 체코의 중요한 작곡가들의 실내악 작품들을 녹음했다. 야나체크는 체코의 민족음악을 가장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작곡가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음악은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바이올린 소나타'도 그 중 하나로, 신선하고 낯선 멜로디와 예상을 빗나가는 리듬은 진지함과 유머를 넘나든다. 마르티누의 '이중주'는 현악기의 모든 것을 들려주려는 듯 화려하고 강렬하게 연주된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으로부터'에는 민족적인 선율이 서유럽의 낭만음악으로 정련되어있으며, 드보르작의 '로망스'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UP 0148-2 131

하이든: 테 데움, 베토벤: 요제프 2세 사망 칸타타, 레오폴트 2세 즉위 칸타타
프라하 합창단, 남 보헤미아 실내 관현악단, 이르지 페트르들리크(지휘)

하이든과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위해 작곡한 칸타타들

칸타타는 본래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연주되는 음악이었지만, 점차 극적인 특징이 강화되면서 18세기 중반부터 종교와 관계없는 칸타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 고전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의 행사용으로 칸타타가 많이 작곡되었는데, 이 음반에서는 특히 오스트리아 황제를 위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 하이든의 테데움은 마리 테레제 여제를 위한 것이며, 베토벤의 두 개의 칸타타는 각각 요제프 2세의 죽음과 레오폴트 2세의 즉위를 위한 것이다. 종교적인 엄숙함과는 사뭇 다른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가 매혹적이다.

UP 0153-2 131

나의 사랑, 바이올린
토마시 빈클라트(바이올린), 마르틴 필라(피아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출신의 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선사하는 음악 선물

빈클라트는 2011년까지 14년간 빈 필하모닉의 단원으로 활동했던 바이올리니스트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드르들라의 '추억',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등 유명한 소품과 함께, 이자이의 라이벌이었던 후버이의 '안녕, 카티!'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왈츠', 그리고 '치고이네르바이젠'으로 유명한 사라사테의 '안달루시아의 로망스' 등 숨겨진 아름다운 명곡들을 연주했다. 또한 드보르작의 '소나티나'로 대미를 장식하고 앙코르로 '신세계 교향곡'의 2악장 선율을 수록하여 하나의 리사이틀을 완성한다.

UP 0154-2 131

스카를라티: 열 개의 소나타의 기타 듀오 편곡
시엠프레 누에보

오리지널 피아노 연주를 능가하는 극적인 긴장과 화려함

언제나 새롭다는 뜻의 기타 듀오 '시엠프레 누에보'는 체코의 젊은 기타리스트인 마테이 프레믈과 파트리크 바치크에 의해 2007년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체코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중국 등 수많은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이 음반은 스카를라티의 피아노 소나타 열곡의 편곡을 들려준다. 모든 곡들은 프레믈이 자신들의 실력이 최고로 발휘되도록 편곡한 것으로, 이 음반의 연주는 어색함 없이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오히려 오리지널 피아노 연주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극적인 긴장과 화려함을 두 연주자의 대결을 통해 이끌어낸다.

UP 0156

바로크 시대의 트럼펫 음악
얀 린다(트럼펫), 미로슬라프 프세니츠카(오르간)

금관의 황금시대를 추억하는 바로크 시대의 트럼펫 음악

트럼페터 얀 린다는 프라하 국제 콘체르티노 콩쿠르 우승자이며, 윈튼 마살리스로부터 마스터클래스를 받았다. 클라크의 팡파르 '덴마크 왕자의 행진'으로 시작을 열고, 헨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3번'이 이어진다. 수상음악은 금관의 활약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트럼펫과 오르간의 연주는 원곡의 성격과 잘 매치된다. 베이바노프스키의 '세레나데'는 두 대의 트럼펫으로 금관의 황금시대를 추억하고, 로이예의 '소나타'는 프랑스 바로크의 유려한 선율을 유감없이 들려준다. 이외에도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도 매우 아름답다.

KKV

www.kkv.no

FXCD 379
Sigvart Dagsland:
Villa Nordraak

천사가 있다면 그룹 예스의 보컬 존 앤더슨이나 노르웨이의 음유시인 시그바르트 닥스단드의 목소리로 노래하리라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데토르 랑 티'는 이 음반의 백미. 닥스란드는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북유럽의 가수. 여덟 명의 반주자로 구성된 밴드 이름도 독특. '결혼식과 장례식 오케스트라'. 닥스란드가 그들과 함께한 이 신보는 북유럽권 베스트셀러.

FXCD 382
Jørn Simen Øverli:
Markaviser

포크 가수 욘 시멘의 신보. 소르케달른 교회에서 2012년 6월 녹음한 내용

욘 시멘은 러시아 음유시인 블라디미르 비쏘츠키의 노래를 보급하여 정치참여적 가수로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좌파 정치 집회 단골 가수다. 노르드마카, 크록스코겐 지방 노래들을 담아낸 이 음반은 숲과 산과 물이 스민 대자연을 노래한다.

FXCD 383-2
Kari Bremnes:
Og S Kom Resten Av Livet

카리 브람네스의 신보 〈인생의 여정〉. 쑥물 든 노르웨이의 길을 따라 걸으며 듣는 힐링 사운드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아름다운 삶, 사랑, 마무리'의 사운드 트랙처럼 여겨질 법한 이 숭고한 자연주의의 결과물은 브렘네스의 가장 개인적인 작업이었다. 11곡의 새로운 노래들은 아름답고 심오한 시적 세계를 펼쳐 보인다. '석양 무렵', '남자의 방' '촛대' 등의 슬프도록 맑은 노래들이 이어지고 있다.

FXCD 386
Rim Banna:
Revelation of Ecstasy & Rebellion

갈릴리 나사렛이 고향인 림바나는 아랍의 봄이 한창일 때 예술가들과 함께 자유를 위해 싸웠다. 중동권의 정신을 알아가고자 튀니지와 팔레스타인, 이라크와 페르시아, 안달루시아 작가들을 동경하고 그들 아랍권 신비의 시를 노래하기로 결심. 낯선 이국의 악기들이 들려주는 '자유인, 비의 찬송가, 더 선 오브 러브'는 오아시스의 쉼을 충분히 느끼게 해줄 것이다.

FXCD 393
Skruk:
Sangen Fra Katakombene

노르웨이 합창단 스쿠룩의 신보 〈지하묘지에서〉는 NRK 다큐멘터리의 사운드 트랙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음악이라면 초기 기독교도들의 피신처인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서 불린 찬송가일 것이다. 스쿠룩이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 그리고 시리아, 터키, 레바논의 파편화된 고대 언어권을 공부하고 노래의 콜라주를 완성해낸 그 과정 또한 신비롭다.

FXCD 396
Iver Kleive, Povl Dissing, Knut Reiersrud:
Som Den Gyldne Sol

슈베르트와 브람스를 대성당 오르간과 전기 기타, 음유시인 폴 디싱의 목소리로 듣는다

황금빛 태양으로 가는 여정을 노래한 오래된 북유럽 성가들. 이베르 클레이베와 덴마크의 로커이자 음유시인 폴 디싱의 절창. 오르간의 정수를 들려주는 이베르 클레이베의 연주는 노르웨이 찬송가의 히트 퍼레이드라 할 만하다. 게다가 블루스 전자 기타의 명인 크누트의 결합은 이 음반의 수준 높은 격을 증명한다.

FXCD 397
Solfrid Molland:
Musikken er mitt fedreland

솔프리드 몰란드의 신보 〈음악은 내 조국〉. 집시 음악의 결정판

오슬로 필하모닉 주자 수준을 능가하는 거리의 악사 몰란드. 바이올리니스트 발렌틴 바실레를 만나 음악의 숭고함에 가 닿았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몰란드는 아코디언 연주자 오르게 바실레 부조이아노를 가장 빼닮은 가객이 되었다. 6번 트랙 '암 코민 마수 데 노리'는 익숙한 멜로디일 것이다. 러시아 민속 음악과 집시 음악과 함께 성장한 그녀의 빛나는 성취를 맛보시길.

FXCD 400
40 Years' Credibility

KKV 레이블의 40년이 모두 담긴 박스 세트

모든 심장, 모든 슬픔, 북유럽풍 화원의 모든 향기를 맡아보라. 힐켈리흐 쿨투르 베르크스타(KKV) 레이블의 40년 신뢰의 여정이 담긴 호화 박스세트. 지난 2014년 KKV는 40년을 맞았다. 카리 브렘네스,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손드레 브라트란드, 욘 시멘, 스크룩, 이베르 클레이베. 마리아 안톤센, 카롤라 마리아, 케틸 비외른스타트, 올레 파우스, 카티아 까르데날, 림바나, 캐롤라인 크루거등 쟁쟁한 모든 스타들 총출동.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사이클
다면체적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관현악 세계의 모든 것
쇼스타코비치 교향곡과 협주곡 전곡 영상물 전집
DVD/ Blu-ray

게르기예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외에는 그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음악역사의 새로운 금자탑!
연주실황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북 해설,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을 통해 쇼스타코비치의 험난한 삶과 이를 투영한 천재적인 작품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입문서이자 전무후무한 완성형.
이 하나의 박스를 통해 우리는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음악 전체를 '전혀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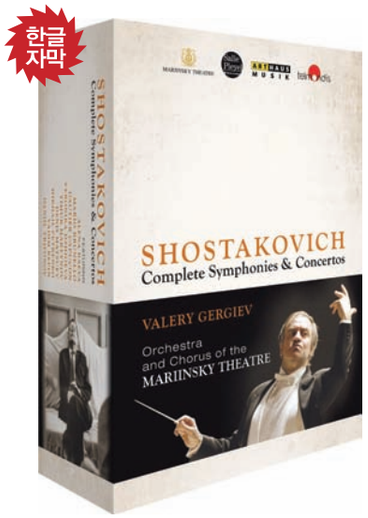
[개략]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그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외에 이러한 도전을 감행할 만한 경우는 없다. 단 1년의 기간 동안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15개의 교향곡들과 6개의 협주곡 전체를 파리의 살르 프레옐에서 녹음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협주곡 전곡 영상물 레코딩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예술가들과 프로덕션 전체 팀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값진 모험인가! 텔레비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바이로이트에서 처음으로 '링'을 방송한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단체 영상물 제작 기획이다.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배경, 사회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 공산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적인 강압에 의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함,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요구와 자신의 내적 부름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 등등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살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스타코비치는 진정한 음악의 천재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쇼스타코비치 사이클 발매분에는 각 교향곡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 많은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을 단 해설용 영상물이 첨가되어 있다. 게르기예프가 직접 각 작품을 해설하는 동시에 역사적인 기록 영상물들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곡가의 삶과 작품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갖고 있다. 한편 각 교향곡과 협주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해설이 프로그램 북에 수록되어 있다.

[DVD INDEX]

[DVD 1]

* Symphony No. 1 in F minor, Op. 10
* Symphony No. 2 in B major, "To October", for orchestra with mixed chorus, Op. 14
*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No. 2 in F major, Op.102 / Denis Matsuev (piano)
* Symphony No. 15 in A major, Op. 141



Dimitri Shostakovic Cycle
Arthaus 107551 [8DVD]
107552 [4Blu-ray]

[DVD, BLU-RAY 구성]

SHOSTAKOVICH
COMPLETE SYMPHONIES
& CONCERTOS

Live from
the Salle Pleyel, Paris 2013/14

Musical Director and
Conductor Valery Gergiev

Orchestra and
Chorus of the Mariinsky Theatre

[DVD 2]
* Symphony No. 3 in E flat major, "The First of May", for orchestra with mixed chorus, Op. 20
*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No. 2 in G major, Op. 126 / Mario Brunello (violoncello)
* Symphony No. 13 in B flat minor, "Babi Yar", for bass, bass chorus and orchestra, Op. 113 / Mikhail Petrenko (bass), Male Chorus of the Mariinsky Theatre

[DVD 3]
* Symphony No. 4 in C minor, Op. 43
* Concerto for Piano, String Orchestra and Trumpet No. 1 in C minor, Op. 35 / Daniil Trifonov (piano), Timur Martynov (trumpet)?
* Symphony No. 9 in E flat major, Op. 70

[DVD 4]
* Symphony No. 5 in D minor, Op. 47
* Symphony No. 14, for soprano, bass and chamber orchestra, Op. 135 / Veronika Dzhioeva (soprano), M ikhail Petrenko (bass)
Special Feature Dmitri Shostakovich – A Man of Many Faces. A Film by Reiner Moritz (2015)

[DVD 5]
* Symphony No. 6 in B minor, Op. 54
*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No. 1 in E flat major, Op. 107 / Gautier Capucon (violoncello)
* Symphony No. 10 in E minor, Op. 93

[DVD 6]
*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No. 2 in C sharp minor, Op. 129 / Alena Baeva (violin)
* Symphony No. 7 in C major, "Leningrad", Op. 60

[DVD 7]
* Symphony No. 8 in C minor, Op. 65
* Symphony No. 12 in D minor, "The Year 1917", Op. 112

[DVD 8]
*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No. 1 in A minor, Op. 77 (originally published as Op. 99) / Vadim Repin (violin)
* Symphony No. 11 in G minor, "The Year 1905", Op. 103

[포맷]

* Sound Formats: PCM Stereo, dts-HD Master Audio 5.0 / * Picture Format: 16:9
* Subtitles: English(Original Language, Symphonies subtitled), German, French, Korean, Japanese(Symphonies, Introductions, Documentary)
* Blu-ray Disc: 4 x 50 GB (Dual Layers) / * Resolution: 1080i High Defi nition
* Running Time: ca. 970 mins Symphonies & Concertos /
* ca. 56 mins Introductions / 56 mins Documentary
* FSK: 0

[BLU-RAY INDEX]

[Blu-ray 1]
* Symphony No. 1 in F minor, Op. 10
* Symphony No. 2 in B major, "To October", for orchestra with mixed chorus, Op. 14
* Symphony No. 4 in C minor, Op. 43
* Symphony No. 9 in E fl at major, Op. 70
* Symphony No. 15 in A major, Op. 141
* Concerto for Piano, String Orchestra and Trumpet No. 1 in C minor, Op. 35 / Daniil Trifonov (piano), Timur Martynov (trumpet)
*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No. 2 in F major, Op. 102 / Denis Matsuev (piano)

[Blu-ray 2]
* Symphony No. 3 in E fl at major, "The First of May", for orchestra with mixed chorus, Op. 20
* Symphony No. 6 in B minor, Op. 54
* Symphony No. 10 in E minor, op. 93
* Symphony No. 13 in B fl at minor, "Babi Yar", for bass, bass chorus and orchestra, Op. 113 / Mikhail Petrenko (bass), Male Chorus of the Mariinsky Theatre
*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No. 1 in E fl at major, Op. 107 / Gautier Capucon (violoncello)
* Concerto for Violoncello and Orchestra No. 2 in G major, Op. 126 / Mario Brunello (violoncello)

[Blu-ray 3]
* Symphony No. 7 in C major, "Leningrad", Op. 60
* Symphony No. 11 in G minor, "The Year 1905", Op. 103
*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No. 1 in A minor, Op. 77 (originally published as Op. 99) / Vadim Repin (violin)
* Concerto for Violin and Orchestra No. 2 in C sharp minor, Op. 129 / Alena Baeva (violin)

[Blu-ray 4]
* Symphony No. 5 in D minor, Op. 47
* Symphony No. 8 in C minor, Op. 65
* Symphony No. 12 in D minor, "The Year 1917", Op. 112
* Symphony No. 14, for soprano, bass and chamber orchestra, Op. 135 / Veronika Dzhioeva (soprano), Mikhail Petrenko (bass),
Special Feature Dmitri Shostakovich – A Man of Many Faces. A Film by Reiner Moritz (2015)

C Major Entertainment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19108 **[2DVDs]**
C Major 719204 **[Blu-ray]**

[강력추천]

말러: 교향곡 3번/ 교향곡 4번

발트라우트 마이어(ms)/ 게니아 퀴흐마이어(sop)/ 파보 예르비/ HR 신포니오케스터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2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고품질의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되고 있다. 두 번째 출시작인 본 신보에는 이른바 '뿔피리 3부작'의 마지막 두 작품인 교향곡 3번과 교향곡 4번 '부활'이 함께 수록되었다. 두 교향곡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공연된 것으로, 교향곡 3번은 2007년 6월, 교향곡 4번은 2008년 6월의 기록이다. 두 교향곡의 세부를 잘 다듬어낸 예르비의 섬세한 연출력과 더불어, 발트라우트 마이어의 중후한 저음과 게니아 퀴흐마이어의 깨끗한 미성이 두 교향곡의 캐릭터를 더 한층 돋보이게 만든다. 두 교향곡에 삽입된 성악 파트들의 텍스트는 물론이거니와, 각 교향곡에 대한 파보 예르비의 육성 해설에도 한글자막이 첨부되었다.

C Major 719904 **[Blu-ray]**

브람스: 독일 레퀴엠

크리슈틴 섀퍼(sop)/ 크리슈티안 게르하허(br)/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크리슈티안 틸레만/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슈티안 틸레만, 거장시대의 향수를 재현하다

브람스 최고의 합창걸작인 '독일레퀴엠'은 '레퀴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라틴 텍스트의 가톨릭전례음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다. 브람스는 예배의 목적 보다는 콘서트를 위해 이 작품을 계획하였고, 루터의 독일어성경에서 죽음 및 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하여 텍스트로 삼았다. 본 DVD는 2007년 뮌헨 가슈타익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게르만 마에스트로 크리슈티안 틸레만이 뮌헨 필 재직시절 남겼던 콘서트들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의 하나로 꼽히는 명연이다. 틸레만이 만들어내는 여유롭고도 묵직한 흐름은 과거 거장시대 만들어졌던 이 작품의 여러 명연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든다.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슈티네 섀퍼의 잘 다듬어진 가창과 인기 절정의 바리톤 크리슈티안 게르하허의 풍부한 성량도 틸레만의 중량급 해석과 근사한 궁합을 이룬다.

C Major 729308 **[2DVDs]**
C Major 729404 **[Blu-ray]**

말러: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

파보 예르비/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3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고품질의 영상물로 등장하였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출시작인 본 신보는 말러가 '뿔피리 삼부작'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순수 기악 교향곡으로 회귀했던 시절에 완성했던 두 편의 묵직한 교향곡들을 함께 담고 있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아다지에토'를 담고 있는 교향곡 5번과 어마어마한 나무망치의 타격으로 유명한 교향곡 6번 '비극적'이 그것이다. 두 교향곡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연주된 것으로, 교향곡 5번은 2011년, 교향곡 6번은 2013년의 기록이다. 두 교향곡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하는 예르비의 육성해설도 흥미롭다.

C Major 728908 **[2DVDs]**
C Major 729004 **[Blu-ray]**

R. 슈트라우스 갈라 콘서트 & 다큐멘터리

크리스티네 괴르케, 아냐 하르테로스, 카밀라 닐룬드(sop)/ 크리스티안 틸레만/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R. 슈트라우스와 드레스덴의 돈독한 인연을 상기시켜주는 화려한 갈라 콘서트

동부 독일의 고도 드레스덴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다. 슈트라우스는 뮌헨에서 태어났고 베를린에서 음악을 배웠지만, 그가 가장 아꼈던 도시는 드레스덴이었다. 그가 완성한 15편의 오페라들 중에서 무려 9편이 드레스덴 슈타츠오퍼에서 초연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그와 이 도시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슈트라우스의 탄생 150주년인 2014년을 맞이하여, 드레스덴 슈타츠오퍼는 자신들을 가장 사랑했던 작고가를 기념하는 특별한 갈라 콘서트를 준비하였다. 그의 두 번째 오페라인 〈불의 결핍〉에서 열세 번째 오페라인 〈다프네〉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에서 초연되었던 아홉 편의 오페라 각각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슈트라우스 히로인들인 크리스티네 괴르케, 아냐 하르테로스, 카밀라 닐룬드가 크리스티안 틸레만과 호흡을 맞추었다. 슈트라우스에 대한 틸레만의 남다른 열정을 다룬 안드레아스 모렐의 음악 다큐멘터리가 함께 한글자막과 함께 제공된다.

C Major 729104 **[Blu-ray]**

200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피에르 불레즈와 다니엘 바렌보임, 구 거인들의 강렬한 협연

200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지휘와 작곡 양 분야 모두에서 현존 최고의 거장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피에르 불레즈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막콘서트의 프로그램은 거장의 가장 확실한 장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세기 초반의 대표관현악 레퍼토리들로 편성되었다. 라벨의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정교하게 펼쳐나가는 노대가의 혜안과 감각은 여전히 싱그럽기 그지없다. 바르톡의 피아노협주곡 1번에서는 또 한명의 거장이 합세하였다. 평소 불레즈에 대한 두터운 존경심을 드러내왔던 다이엘 바렌보임이 독주자로 나서서 이 콘서트의 중량감을 한층 더 배가시켰다.

C Major 729204 **[Blu-ray]**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개막 콘서트

아르농쿠르와 빈 필하모닉이 함께 빚어낸 슈베르트의 '위대한' 교향곡

위대한 마에스트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200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개막콘서트를 지휘하였다. 베베른이 근대적인 감각으로 편곡한 슈베르트의 6개의 독일춤곡과 형의 높은 명성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들로 구성된 전반부 프로그램은 새로운 레퍼토리들에 대한 부단한 탐구정신을 보여준다. 콘서트의 후반부는 '그레이트'라는 부재에 걸맞은 스케일과 완성도를 갖춘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장식되었다. 아르농쿠르의 개성적인 심미안과 빈 필하모닉이 자랑하는 고품격 사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연주는 이 교향곡이 왜 '그레이트' 교향곡임을 확인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C Major 729508 **[2DVDs]**
C Major 729604 **[Blu-ray]**

말러: 교향곡 7번, 교향곡 8번

에린 월(sop), 알리스 쿠트(ms), 샬로테 헬레칸트(alt), 니콜라이 슈코프(te), 에인 앵거(bass) 외/ 브루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외/ 파보 예르비/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한글자막과 함께 만나는 말러 교향곡 8번의 장대한 위용

파보 예르비는 2013/14 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터(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C Major에서는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말러 교향곡 시리즈를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차례로 발매 중이다. 시리즈의 4탄인 본 신보에는 'Nachtmusik'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독특한 두 악장이 포함된 순수 기악 교향곡인 교향곡 7번과 '천인의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전대미문의 방대한 스케일의 칸타타 풍의 작품인 교향곡 8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7번은 2011년 8월 12일 비스바덴 쿠어하우스의 프리드리히-폰-티에르슈-잘에서 있었던 실황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고, 교향곡 8번은 2013년 5월 24/25일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에서 있었던 두 번의 실황을 편집 수록한 것이다. 특히 교향곡 8번의 장대한 위용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본 신보의 등장은 많은 말러리안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영상으로 제공되는 각 교향곡에 대한 예르비의 육성 해설에도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C Major 729908 **[DVD]**
C Major 730004 **[Blu-ray]**

다큐 핫 이슈!!!
R.슈트라우스의 전기적인 다큐멘터리
– At The End Of the Rainbow

*** 작곡가가 지휘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막식과 장미의 기사 리허설을 비롯한 각종 역사적 필름이 HD화질로 최초 복원.**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의 1942년 AEG 공장에서의 마이스터징거 서곡 실황 전곡이 보너스 트랙으로 수록.**

카라얀의 The Second Life와 전설적인 바그네리안 테너 막스 로렌츠의 Hitler's Siegfried와 같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의 거장 감독으로 발돋음한 에릭 숄츠 감독의 신작 영상물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전기적 다큐멘터리. R.슈트라우스 관련 다큐멘터리 가운데 가장 방대한 자료와 정확한 증언, 고도로 설계된 드라마트루기를 바탕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 전체를 가장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조명한 음악 다큐멘터리의 걸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나치시대의 활동과 작품에 담긴 의미, 그의 엄청난 천재성과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종합하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작곡가의 속마음과 의도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그의 새로운 위상과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발견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영상물에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C Major 729708 **[DVD]**
C Major 729804 **[Blu-ray]**

말러: 교향곡 9번, 교향곡 10번 중 '아다지오'

파보 예르비/ HR-신포니오케스터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완결작

파보 예르비는 2013/14 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터(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말러 교향곡 시리즈가 최고 품질의 영상물로 차례로 발매 중이다. 시리즈의 최종작인 본 신보에는 말러가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교향곡인 9번과 교향곡 10번 중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악장인 1악장 '아다지오'가 함께 수록되었다. 교향곡 9번은 말러가 현세에 남기는 고별사와도 같은 걸작으로, 특히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듯한 마지막 악장의 감동이 각별하다. 미완성 상태의 유작인 교향곡 10번은 후대에 여러 작곡가들의 저마다의 완성본을 내놓고 있지만, 예르비는 말러가 마무리한 진정한 마지막 작품인 '아다지오' 악장만을 본 사이클에 포함시켰다. 두 작품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의 콘서트를 수록한 것으로 교향곡 9번은 2009년 6월, '아다지오'는 2008년 6월에 녹화된 영상이다. 교향곡 9번과 말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예르비의 육성 인터뷰가 한글자막과 함께 수록되었다.

C Major 730108 **[DVD]**
C Major 730204 **[Blu-ray]**

말러: 교향곡 6번/ R. 슈트라우스: '그림자 없는 여인' 환상곡 외

발레리 게르기에프/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2014년 BBC 프롬스 실황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World Orchestra for Peace)는 "음악을 특별한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목표로 거장 게오르그 솔티의 주창으로 지난 1995년에 결성되었던 비상설 오케스트라다. 솔티가 사망한 이후로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그의 유지를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 본 영상물은 지난 2014년 7월, BBC 프롬스 기간 중에 로얄 알버트 홀에서 펼쳐졌었던 이들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이다. R. 슈트라우스가 솔티의 요청으로 자신의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의 선율을 토대로 완성했던 심포닉 판타지아, 아브라함 유래의 세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평화적 공존을 다룬 작품인 여류 작곡가 록산나 파누프닉의 '평화를 향한 3가지 길', 그리고 지난 2010년 프롬스 기간 중에 연주해서 호평을 받았던 말러의 교향곡 4,5번(앞서 C Major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됨)에 이어서 그의 교향곡 6번이 이날 함께 연주되었다.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결성 20주년을 기념하는 40분 분량의다큐멘터리인 'From War to Peace'가 함께 수록되었다.

C Major 731304 **[Blu-ray]**

말러: 교향곡 4번, 교향곡 5번

발레리 게르기에프/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의 2010년 BBC 프롬스 실황

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World Orchestra for Peace)는 "음악을 특별한 힘을 통한 세계 평화"를 목표로 거장 게오르그 솔티의 주창으로 지난 1995년에 결성되었던 비상설 오케스트라다. 솔티가 사망한 이후로는 러시아 출신의 거장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그의 유지를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다. 본 영상물은 2010년 8월 런던의 프롬스 기간 중에 가졌던 콘서트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말러의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기인 2010/2011년 시즌을 기념하여 말러의 교향곡 4번과 교향곡 5번을 함께 무대에 올렸다. 거대한 알버트 홀을 가득 메운 5,500여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에 이끌어낸 게르기에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빈 필의 악장 라이너 퀴흘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뮤지션들의 감동적인 열연을 최고의 화질로 담았다.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의 15년 역사를 담은 2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가 부록으로 함께 수록 되었다.

CONCERTGEBOUWORKEST
RCO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RCO Live

www.rcolive.com

RCO Live RCO04103 **[DVD]**

[RCO 재수입]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다큐멘터리 '여섯 번째 마에스트로'

마리스 얀손스/ 로얄 콘세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

10년 밀월의 시작점이 되었던 얀손스의 콘세르트헤보우 취임 콘서트 실황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의 한 사람인 마리스 얀손스는 2014/15시즌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재임했던 암스테르담 로얄 콘세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이임에 즈음하여 2004년 9월 4일에 있었던 그의 취임 콘서트 실황을 담은 본 DVD가 오랜만에 국내에 재수입되었다. 얀손스는 빌렘 케스, 빌렘 멩겔베르크, 에두아르드 반 베이눔,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리카르도 샤이에 이어서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 명문 오케스트라의 하나인 콘세르트헤보우 오케스트라의 여섯 번째 수석지휘자로 취임했었다. 그는 본 취임 콘서트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R. 슈트라우스의 대표 관현악걸작인 '영웅의 생애'를 선택했는데, 이후 그가 동 악단과 함께 보여주었던 10년의 활약상은 영웅의 위업과도 같은 굵고 화려한 족적을 남기며 얀손스와 악단 양쪽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장식하였다. '영웅의 생애' 전곡의 실황 영상과 함께, 이들의 결합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5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여섯 번째 마에스트로'가 부가영상으로 제공된다.

OpusArte

www.opusarte.com

OpusArte OA1166D **[DVD]**
OpusArte OABD7165D **[Blu-ray]**

도니체티: 라 파보리트

케이트 알드리치(레오노르)/ 이지에 쉬(페르난드)/ 루도빅 테지에(알폰스)/ 조반니 푸를라네토(발타자르) 외/ 안토넬로 알레만디/ 테아트르 뒤 카피톨 툴루즈

드디어 최신 영상물로 출시된 메조소프라노를 위한 도니체티의 걸작 오페라

도니체티의 대표작들 중에서 몇은 모국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의 관객들을 위해 완성한 작품들이다. 오페라 코미크 〈연대의 딸〉과 그랑 오페라 〈라 파보리트〉(La Favorite)가 그러하다. 1840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던 〈라 파보리트〉는 대부분의 오페라들에서 소프라노 프리마 돈나를 서포트하는 조연의 역할에 머물러야만했던 메조소프라노가 모처럼 무대 전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할 수 있는 작품의 하나로, 이후의 이탈리아어 개정 버전의 제목인 〈라 파보리타〉(La Favorita)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스타급 메조소프라노들의 필수 관문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신 영상물을 이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는데, 2014년 툴루즈 테아트르 뒤 카피톨에서 있었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의 등장은 많은 도니체티 애호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저명한 연출가 뱅셍 부사르의 사실적인 연출, 크리스티앙 라크루아의 화려한 의상, 페사로 로시니 페스티벌의 인기 스타인 중국 출신의 신예 테너 이지에 쉬의 놀라운 기량, 우아한 매력의 메조소프라노 케이트 알드리치의 열연이 눈과 귀를 모두 만족케 한다. 오리지널 프랑스어 버전에 의한 공연이다.

[보조자료]

○ 1840년 2월에 초연되었던 오페라 코미크 〈연대의 딸〉로 파리 관객들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도니체티는 파리 오페라의 위촉으로 또 다른 프랑스어 오페라를 급히 완성해야만 했다. 원래 그는 〈알베 공작〉(Le Duc d'Albe)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기 애인인 메조소프라노 가수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파리 오페라의 디렉터 레옹 필레가 이를 거부하자 부랴부랴 과거의 미발표 오페라인 〈니시다의 천사〉(L'ange de Nisida)를 대대적으로 개작하여 〈라 파보리트〉를 완성하여 같은 해 12월에 파리 오페라에서 초연하였다.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도니체티는 이 작품의 여주인공을 메조소프라노에게 맡겼다. 이후 이 작품은 이탈리아어 버전의 제목인 〈라 파보리타〉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오리지널 프랑스어 버전에서 도니체티가 사용한 리브레토는 바쿨라르 아르노의 희곡 '코맹주 백작'(Le comte de Comminges)을 알퐁스 루아이에와 구스타브 바에즈가 각색한 것이다. 오페라는 1340년 무렵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했던 카스티야 왕국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름 모를 미녀에게 매료된 수도사 페르난도는 환속하여 그 여인과 밀애를 나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그녀는 바로 카스티야 국왕 알폰스의 애첩(La favorite)인 레오노르다. 페르난도는 이 정체불명의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서 큰 무공을 세우지만, 결국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다. 이후 세 사람의 삼각관계와 페르난도의 벼락출세를 시기하는 귀족들, 왕의 부도덕한 애정을 향한 수도원장의 비난 등이 복잡하게 뒤얽히며 극은 점점 파국으로 향한다.

OpusArte OA1156D **[DVD]**
OpusArte OABD7157D **[Blu-ray]**

발레 "겨울 이야기"

크리스토프 윌던(안무)/ 에드워드 왓슨(레온테스)/ 로렌 컷버슨(헤르미오네)/ 페데리코 보넬리(폴릭세네스)/ 사라 램(페르디타) 외/ 영국 로얄 발레단

아름다운 모던 발레로 재탄생한 셰익스피어의 "겨울이야기"

고대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겨울이야기"는 한 인물의 의처증이 낳은 비극을 담은 전반부와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의 재회와 화해를 다룬 후반부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독특한 성격의 작품이다.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는 미모의 아내 헤르미오네와 자신의 절친인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의 불륜을 의심한다. 그의 의심 때문에 가정과 우정 모두가 파국을 맞고, 보헤미아로 몰래 빼돌려진 그의 딸 페르디타는 이름 모를 한 목자의 손에 의해 양육된다. 이후 우여곡절의 여정 끝에 레온테스의 가족과 폴릭세네스와의 우정 모두가 행복하게 해결되며 극은 마무리된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수 겸 안무가 크리스토퍼 윌든은 작곡가 졸리 탈보트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 유명한 희곡을 한 편의 매력적인 모던 발레로 재창조하였다. 본 영상물은 2014년 4월에 공개되었던 이 작품의 세계초연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영국 로얄 발레를 대표하는 스타 무용수들인 에드워드 왓슨(레온테스), 로렌 컷버슨(헤르미오네), 페데리코 보넬리(폴릭세네스), 사라 램(페르디타)이 총출동하였다.

OpusArte OA1157D **[DVD]**
OpusArte OABD7158D **[Blu-ray]**

발레 "미녀와 야수"

카데르 벨라르비(안무)/ 타카후미 와타나베(야수)/ 줄리 로리아(미녀)/ 카즈빅 아크메댜르코프(투우사)/ 발레 뒤 카피톨 툴루즈

리게티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토대로 펼쳐지는 미녀와 야수의 사랑이야기

장-마리 르프랭스 드 보몽의 동화 "미녀와 야수"는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과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가 되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타데르 벨라르비는 2005년 몬트리올 그랑 발레를 위해서 이유명한 동화를 한 편의 매력적인 모던 발레로 재창조하였다. 벨라르비는 기존에 알려진 동화의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했는데, 야수와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는 모두 한 소녀의 몽상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전체적인 플롯을 구성하였다. 벨라르비는 죄르지 리게티가 남긴 다양한 음악들을 동원하여 이 발레의 전반적인 배경음악을 구성하였으며, 라벨, 하이든, 다캥의 작품들도 양념처럼 작품 곳곳에 효과적으로 삽입되었다. 본 영상물은 2013년 10월 툴루즈 라 카피톨에서 있었던 리바이벌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이 무대는 몬트리올에서 공개되었던 초연무대를 능가하는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으로 평단과 객석의 호평을 받았었다. 발레 뒤 카프톨의 두 주역인 줄리 로리아와 타카후미 와타나베가 미녀와 야수를 열연하였다.

OpusArte OA1122D **[DVD]**
OpusArte OABD7133D **[Blu-ray]**

모차르트: 마술피리

막시밀리안 슈미트(타미노)/ 크리스티나 란트샤머(파미나)/ 토마스 올리만스(파파게노)/ 이리데 마르티네스 (밤의 여왕) 외/ 마르크 알브레흐트/ 네덜란드 오페라

영국의 대표극단 '컴플리시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마술피리〉

〈마술피리〉는 1791년 9월 30일 빈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과 프리메이슨의 관계는 지금까지 많은 호사가들의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며, 동화의 큰 틀 속에 심오한 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독특한 내용과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매력적인 음악은 이 작품을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오페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현재도 수많은 연출가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이 작품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극단인 '컴플리시테'의 예술감독인 사이먼 맥버니 역시 다양한 프로젝션 영상, 전문 배우들의 창의적인 팬터마임, 공간을 효과적으로 분배한 현가식 무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이 작품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흥미진진하게 연출하였다. 본 영상물에 수록된 2012년 12월 네덜란드 오페라에서 공개되었던 프로덕션의 초연무대에는 연기와 노래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예 가수들의 활약과 마르크 알브레흐트의 역동적인 지휘가 더하여졌다.

[보조자료]

○ 오페라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사냥을 온 타미노 왕자는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 밤의 여왕이 나타나서 나쁜 세력들에게 빼앗긴 파미나 공주를 구해오라고 한다. 그리하여 타미노는 길을 떠나는데, 파파게노를 시종으로 데려간다. 그들에게 무기가 주어지는데 왕자는 마술피리를, 파파게노는 마술방울을 받는다. 이후의 이야기는 두 청년의 흔한 모험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관객들은 혼란스러운 전개에 직면하니, 이것이 〈마술피리〉의 매력이다. 즉 공주를 감금 아닌 보호하고 있던 권력자는 자라스트로인데, 그는 악당이 아닌 현자였다. 여기서부터 좋은 편과 나쁜 편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 처음엔 동화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세상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게 된다.

○ 본 프로덕션의 연출을 맡은 사이먼 맥버니는 영국을 대표하는 극단인 컴플리시테의 창립멤버이자 예술감독으로서 이 나라의 연극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배우 겸 연출가이다. 그는 2010년 러시아 소설가 마하일 볼가코프의 원작을 토대로 완성한 알렉산더 라스카토프의 신작 오페라 〈개의 심장〉(A Dog's heart)으로 처음 오페라 연출에 입문하였고, 본 영상물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그의 두 번째 오페라 연출작이자, 클래식 오페라로서는 최초로 도전했던 작품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극단 컴플리시테는 2015년 3월에 국립극장에서 연극 '라이온보이'로 첫 내한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OpusArte OA1128D **[2DVDs]**
OpusArte OABD7139D **[Blu-ray]**

베르디: 돈 카를로

라몬 바르가스(돈 카를로)/ 스베틀라나 카시얀(엘리자베트)/ 일다 압드라자코프(펠리페)/ 루도빅 테지에(로드리고) 외/ 자난드레아 노세다/ 테아트로 레조 토리노

장엄한 무대 위로 펼쳐지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명가수들의 열연

2013년 4월, 토리노의 테아트로 레조는 자신들의 재개관 40주년을 기념하여 그들의 클래식 프로덕션인 후고 데 아나의 〈돈 카를로〉를 성대하게 리바이벌하였다. 후고 데 아나의 〈돈 카를로〉는 화려한 의상과 장엄하고 전통적인 무대로 이탈리아 국내는 물론 해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었다. 베르디는 파리 오페라의 위촉으로 프랑스어 리브레토를 사용하여 5막 구성의 대작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후 그는 볼로냐에서의 공연을 위해서 오리지널의 1막 전체를 생략한 이탈리아어버전을 준비하였고, 이후로도 다양한 개정버전을 계속해서 내놓았다. 본 영상물에는 1884년 라 스칼라에서의 공연을 위해 준비되었던 이른바 밀라노 버전이 수록되었다. 2007년부터 이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이탈리아 마에스트로 계보의 적통 자난드레아 노세다의 강력한 지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돈 카를로의 한 사람인 라몬 바르가스의 열창, 물오른 연기와 노래로 일급 오페라 극장을 누비고 있는 루도빅 테지에르와 일다 압드라자코프의 활약이 어우러진 최고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돈 카를로〉의 무대는 16세기 중반의 스페인이다. 당시 펠리페 2세 치하의 스페인은 무적함대를 기반으로 유럽 최고의 강대국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펠리페 2세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들 돈 카를로의 정혼자였던 프랑스 공주 엘리자베타(엘리자베트 드 발르와)와 결혼함으로써 부자간의 갈등이 시작된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민중 구전에 따라 돈 카를로와 엘리자베타가 실제 사랑했던 것으로 묘사한 희곡 '돈 카를로스, 스페인의 왕자'(Don Clarlos, Infant von Spanien)를 썼고, 이를 기초로 프랑소와 죠세프 메리와 카니유 뒤 로클이 프랑스어 리브레토를 완성하였다.

○ 역사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 돈 카를로는 오페라에 묘사된 것과 거리감이 있다. 1545년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의 공주 마리아 마누엘라와의 사이에서 왕자 돈 카를로를 얻었다. 마리아는 난산 끝에 나흘 만에 요절하였고, 카를로는 모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1559년 카를로는 동갑내기 프랑스 공주 엘리자베타와 약혼하였지만, 그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듬해 펠리페 2세와 결혼하게 된다. 펠리페는 새 아내와 아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펠리페는 지적 능력과 인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카를로를 멀리했으며, 카를로 역시 통제 불능의 광기를 자주 드러내곤 했다. 카를로는 스페인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되어 1568년에 구금되었고 그 뒤 몇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고 말았다. 엘리자베타 역시 카를로가 죽은 뒤 석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Philharmonia Records

www.philharmonia-records.com

PHR 0203 **[DVD]**

베르디: 리골레토

게오르게 페테안(리골레토)/ 사이미르 피르구(공작)/ 알렉산드라 쿠르착(질다)/ 안드레아 마스트로니(스파라푸칠레) 외/ 파비오 루이지/ 취리히 오페라

취리히 오페라의 자체 레이블로 선보이는 현대적인 분위기의 〈리골레토〉

취리히 오페라는 과거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음악감독으로 있던 시절부터 자신들의 공연실황을 적극적으로 영상물로 출시해왔다. 최근 이들은 극장의 자체 레이블인 Philharmonia Records를 설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음반과 영상물 제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영상물 출시작은 베르디 최고의 인기 오페라인 〈리골레토〉를 담았다. 2014년 6월에 있었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2012/13시즌부터 이 극장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봉을 잡았고, 최근 대서양 양안의 일급 오페라 무대들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동구권 출신의 기대주들인 사이미르 피르구, 알렉산드라 쿠르착, 게오르게 파테안이 오페라의 주요 배역들을 맡았다. 페터 콘비츠니의 제자인 독일 출신의 여류 연출가 타티아나 귀르바카는 무대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테이블을 활용한 미니멀한 무대를 배경으로 현대적인 심리극의 분위기로 이 오페라를 연출해내었으며, 극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합창단의 활약상이 특히 인상적이다.

****본 제품에는 내지(booklet)가 원래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 〈리골레토〉는 베르디의 오페라들 중에서도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와 더불어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작품에 해당한다. 빅토르 위고의 희곡 '호색의 왕(Le roi s'amuse)'을 기초로 프란치스코 마리아 피아베가 완성한 리브레토를 사용하였고, 1851년 3월 11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즉 이 오페라는 〈에르나니〉와 〈아틸라〉에 이어서 베르디가 이 극장을 위해서 완성한 세 번째 작품인 셈이다. 초연직후부터 센세이셔널한 히트를 거두었고, 이 작품의 엄청난 성공을 통해서 베르디는 자신의 캐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공작의 두 아리아 '여자의 마음'과 '이것도 저것도', 질다의 아리아 '그리운 이름', 리골레토가 부르는 분노의 아리아 '저주받을 신하들아', 4중창 '사랑스러운 딸'등 주옥과 같은 선율들로 채워진 걸작 오페라다.

○ 2014년 취리히 오페라극장에서의 공연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에는 최근 유럽의 일급 오페라 무대들에서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이 등장한다. 2002년 카루소 콩쿠르와 티토 스키파 콩쿠르를 차례로 석권한 이후, 라 스칼라, 파리 국립오페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메트, 빈 슈타츠오퍼 등의 최고 무대를 누비고 있는 알바니아 출신의 기대주 사이미르 피르구가 만토바 공작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의 멤버로 활약한 이후, 메트,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라 스칼라, 베를린 슈타츠오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빈 슈타츠오퍼 등에 차례로 데뷔했으며, 2010년에는 Decca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화제를 모았던 폴란드 출신의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쿠르착이 질다를, 2000년 로마 오페라에서 〈라 보엠〉으로 크게 호평을 받은 이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체오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메트 등에서 각광을 받은 루마니아 출신의 바리톤 게오르게 페테안이 리골레토를 노래하였다.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0065 **[DVD]**
Arthaus 108126 **[Blu-ray]**

헨델: 아리오단테

앤 머레이(아리오단테)/ 조안 로저스(지네브라)/ 귄 하웰(왕)/ 크리스토퍼 롭슨(폴리네소)/ 레슬리 가렛(달린다) 외/ 아이버 볼튼/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섯 남녀 사이의 복잡한 애증의 드라마

헨델이 완성한 3막의 오페라 세리아 〈아리오단테〉는 1735년 런던에서 초연되었다. 당시 헨델은 왕세자가 재정을 지원하던 다른 오페라극장과 경쟁관계였는데, 〈아리오단테〉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헨델은 경쟁구도에서 한 발 앞설 수 있었다. 헨델의 여느 오페라 세리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헨델의 사후에 급속히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바로크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기 시작했던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헨델의 가장 뛰어난 오페라 걸작의 하나로 손꼽힌다. 본 영상물은 1996년 런던 콜리세움에서 펼쳐졌던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1993년 처음 공개되어 관객들과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데이비드 알든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저음여가수 앤 머레이가 타이틀 롤을 열연하였고, 조안 로저스와 레슬리 가렛의 싱그러운 시절의 미모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전통 그대로 원래의 이탈리아어 리브레토를 영어로 번역해서 노래하였다.

[한글과 영어 자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 〈아리오단테〉는 작자미상의 이탈리아어 리브레토를 기초로 완성되었다. 이는 루디비코 아리오스토의 '분노의 오를란도'의 5부와 6부를 각색했던 안토니오 살비의 희곡을 기초로 하였다. 당대의 인기 카스트라토였던 조반니 카레스티니가 초연무대에서 타이틀 롤을 노래하였고, 영국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던 이탈리아 소프라노인 안나 마리아 스트라다와 영국 자국 출신의 인기 소프라노였던 세실리아 영이 지네브라와 달린다를 각각 노래하면서 무대 위에서의 묘한 경쟁구도를 만들기도 했다.

○ 오페라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네브라 공주는 기사인 아리오단테와 사랑에 빠져있다. 그녀의 아버지인 스코틀랜드의 왕은 딸의 선택을 허락하고, 아리오단테를 사위와 왕국의 상속자로 받아들인다. 알바니의 공작인 폴리네소는 지네브라와 결혼해서 왕위를 이어받고자 하나, 지네브라는 그의 구혼을 거절한다. 지네브라의 시녀인 달린다는 폴리네소에 푹 빠져서, 그녀를 간절히 사랑하는 아리오단테의 남동생인 루카니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폴리네소는 왕좌를 얻기 위해서, 달린다를 이용하여 그의 라이벌인 아리오단테를 없앨 계략을 세운다. 다섯 남녀 사이의 애증의 오각관계는 복잡한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Arthaus 100201 **[DVD]**
Arthaus 108128 **[Blu-ray]**

퍼셀: 요정 여왕

이본 케니(티타냐)/ 토마스 랜들(오베론)/ 사이먼 라이스(퍽)/ 리처드 반 알랜(테세우스)/ 마이클 챈스(인간)/ 아서 피타(인디언소년)/ 니콜라스 콕/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데이비드 파운트니를 세계적인 오페라연출가로 등극시켰던 매력만점의 무대

헨리 퍼셀의 세미오페라(또는 마스크) 〈요정 여왕〉(The Fairy Queen)은 멘델스존의 극부수음악으로도 널리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을 토대로 각색한 작자미상의 리브레토에다 음악을 붙여서 완성한 작품이다. 작곡가의 때 이른 죽음 이후에 분실되었던 이 작품의 스코어는 20세기 초에 다시 재발견되었는데, 이후 퍼셀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 영상물은 1995년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오페라연출가의 한 사람인 데이비드 파운트니의 화려하고도 매력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파운트니는 이 프로덕션의 큰 성공을 통해서 일약 유럽 오페라무대의 기대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음악과 춤, 그리고 여러 볼거리들이 현대의 관객들에게도 바로크 시대의 화려하고도 생기발랄한 매력을 전달해주며, 이본 케니, 마이클 챈스, 토마스 랜들을 비롯한 영국의 실력파 가수들의 감미로운 가창과 어릿광대 요정 퍽을 맡은 사이먼 라이스의 코믹한 열연도 프로덕션의 완성도를 드높였다.

[한글과 영어 자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을 토대로 하는 이 오페라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꼬마 인디언 소년의 소유를 두고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한편 궁정의 중신 이지어스의 딸 허미어는 데미트리어스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연인 라이산더와 도망을 친다. 데미트리어스는 이들 커플을 뒤쫓고 데미트리어스를 짝사랑하던 헬레나도 이들을 따른다. 오베론은 사랑의 마약으로 데미트리어스와 헬레나를 이어줄려고 했지만, 요정 버크의 실수로 라이산더가 헬레나와 사랑에 빠진다. 한편 타티아나는 사랑의 마약으로 인해 당나귀 탈을 쓴 술주정뱅이 시인 바텀과 사랑에 빠진다. 오베론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모두를 잠재운 뒤 제 짝을 찾아서 그들의 눈에 마약을 바른다. 모두들 잠에서 깨어나고 두 커플의 맺어짐으로 행복하게 극이 마무리된다.

○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데이비드 파운트니는 스코티시 오페라,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의 프로덕션 감독을 거쳐서 2003년부터는 호반 위의 오페라 축제로 유명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책임자로 활약 중이다. 그 외에도 취리히 오페라, 빈 슈타츠오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등의 유럽 최고의 오페라 극장들에서 자신의 프로덕션을 선보였으며, 프랑스 정부와 영국왕실로부터 각각 예술문학훈장과 CBE의 영예를 수여받았다.

Arthaus 109065 **[DVD]**
Arthaus 109066 **[Blu-ray]**

R. 슈트라우스: 사라진 불(Feuersnot)

니콜라 벨레르 카르보네(디무트)/ 디트리히 헨셸(쿤라트)/ 알렉스 바빌로프(슈바이커)/ 루벤 아모레티(오르톨프) 외/ 가브리엘레 페로/ 테아트로 마시모 팔레르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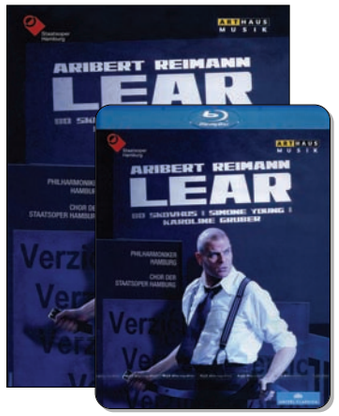
바그너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R. 슈트라우스의 당돌한 자전적 오페라

R. 슈트라우스는 세 번째 오페라인 〈살로메〉를 기점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서 성공일로를 내달리게 되었다. 그에 반해 이전의 두 오페라인 〈군트람〉과 〈사라진 불〉은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거의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비운의 작품들로 남아있다. 〈사라진 불〉이 세인들의 눈밖으로 벗어난 것은 음악적인 완성도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슈트라우스의 드높은 자존감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 중세 바이에른의 하지 축제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오페라에서 슈트라우스는 바그너의 후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더불어, 바그너 안티 세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본 영상물은 2014년 1월 팔레르모의 테아트로 마시모에서 슈트라우스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이다. 연출가인 엠마 단테는 주인공 쿤라트를 마법사가 아닌 음악가로 설정함으로써, 슈트라우스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했던 메시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었으며, 관록의 바리톤 디트리히 헨셸이 보여주는 능란한 연기와 가창이 극을 리드한다.

[보조자료]

○ 오페라의 배경은 중세의 바이에른 지방이다. 주인공인 마법사 쿤라트는 바로 슈트라우스 본인이 투영된 인물이다. 그는 디무트를 보고 한 눈에 반해서, 군중 앞에서 그녀에게 키스한다. 기분이 상한 그녀는 잔꾀를 써서 그를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분노한 쿤라트는 스승 라이흐하르트를 배척했던 군중을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마을의 모든 불을 사라지게 만든다. 암흑의 재난은 결국 디무트의 희생(?)으로 해결된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이 존경해마지않던 바그너가 평생을 통해 집착했던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테마를 여기서 오마주했으며, 쿤라트의 스승인 라이흐하르트는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를 패러디한 것이다. 즉 슈트라우스는 이 오페라를 통해서 자신이 바그너의 적통임을 선언했으며, 더불어 바그너의 음악세계를 비토했던 무리를 무지몽매한 우민들로 몰아갔다. 1901년 11월 드레스덴에서의 초연무대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기 담긴 노골적인 자기애와 바그너 찬양이 점점 부각되면서 이 오페라는 바그너 및 슈트라우스의 반대세력에게 엄청난 어그로꺼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 제목인 Feuersnot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기기가 여의치 않다. '불의 결핍'이나 '불의 재난'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쿤라트에 의해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진 상태,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사랑의 불이 사라진 상태를 대입하자면 '꺼진 불'이나 '사라진 불'이 보다 자연스런 번역이 될 것이다.



Arthaus 109063 **[DVD]**
Arthaus 109064 **[Blu-ray]**

라이만: 리어

보 스코부스(리어왕)/ 카탸 피에벡(고네릴)/ 헬렐 권(레간)/ 시오반 슈탁(코르델리아)/ 에르빈 레더(나르)/ 라우리 바사르(글로스터) 외/ 시모네 영/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기초한 아리베르트 라이만의 대표 오페라 걸작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오셀로'와 '맥베스'는 베르디, '햄릿'은 토마가 유명한 오페라 걸작들로 완성하였다. 나머지 한 작품인 '리어왕'은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공적인 오페라로 재창조될 수 있었는데, 독일 작곡가 아리베르트 라이만의 오페라 〈리어〉가 바로 그것이다. 위대한 바리톤 피셔-디스카우를 염두에 두고 완성된 이 작품은 1978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에서 초연과 더불어 라이만을 독일을 대표하는 현존 오페라 작곡가로 등극시켰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들에서 꾸준히 리바이벌 되면서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오페라 클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영상물은 2014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에서의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이 오페라 최초의 영상물이기도 하다. 카롤리네 그루버의 연출은 현대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각 인물들의 심리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타이틀 롤을 맡은 바리톤 보 스코부스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함께, 유럽에서 활약 중인 우리 소프라노 헬렌 권(권해선)이 주요 배역 중 하나인 리건으로 등장한다.

[보조자료]

○ 독일 작곡가 아리베르트 라이만은 1936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으며, 베를린 도이치 오퍼의 레페티토르로 처음 음악계에 입문했다. 초기에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지만, 이후 작곡으로 방향을 바꿨다. 1978년 피셔-디스카우의 위촉으로 완성한 오페라 〈리어〉가 크게 호평을 받으면서, 현존 독일 음악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부각되었다. 그 외의 주요 오페라들로는 〈유령소나타〉(1984), 〈트로아데스〉(1986), 〈다스 슐로스〉(1992) 등이 있으며, 2010년에 초연된 오페라 〈메데아〉역시 Arthaus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 라이만은 독일의 위대한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를 염두에 두고 이 오페라를 완성하였다. 1968년 피셔-디스카우는 미완의 청년 작곡가였던 라이만에게 리어왕을 소재로 한 오페라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1975년 바이에른 슈타츠오퍼로부터 신작을 위촉받은 라이만은 피셔-디스카우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토대로 클라우스 헨넨베르크가 각색한 독일어 리브레토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초연은 1978년 7월 9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에서 장-피에르 폰넬의 연출로 이뤄졌으며, 당연히 타이틀 롤은 피셔-디스카우가 맡았다.

Arthaus 102206 **[DVD]**
Arthaus 108124 **[Blu-ray]**

도미니크 에르뷰 & 조세 몽탈보의 모던 댄스 "오르페우스"

역동적인 모던 댄스로 되살아난 오르페우스의 슬픈 사랑이야기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였다. 본 영상물에는 한 편의 멋진 현대 무용극으로 재창조된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거리의 예술이었던 힙합을 정통 예술 무대로 끌고 들어오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였던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과거에는 무용수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공동 안무가로 몽탈보와 긴밀한 호흡을 나누었던 도미니크 에르뷰는 그들의 25년에 걸친 공동 작업을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보였다. 오르페우스는 이 무용극에서 실제 외다리 장애인인 한 무용수를 통해 표현되며, 그를 비롯한 아홉 명의 무용수와 일곱 명의 음악가들이 아크로바틱한 무용과 마임, 그리고 동일한 소재를 다룬 몬테베르디와 글룩의 오페라에 담긴 선율을 비롯하여 차이콥스키, 필립 글래스, 윌리엄 버드, 이반 탈보트 등을 망라하는 다양한 음악들을 오가면서 고대의 신화를 현대 파리의 한 복판으로 옮겨놓았다. 다양한 상징을 지닌 배경 영상들과 실제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 사이의 절묘한 조합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Arthaus 102208 **[DVD]**
Arthaus 108174 **[Blu-ray]**

요한 슈트라우스 갈라 콘서트

쥬빈 메타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엔나 전통의 정감 어린 슈트라우스 갈라 콘서트 실황

1999년 빈 필하모닉이 빈의 헬덴플라쯔에 마련한 야외 특설무대에서 공개방송 콘서트로 가졌던 요한 슈트라우스 갈라 콘서트의 실황을 수록. 햇볕이 남아있는 오후에 시작하여 별이 보이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야외 콘서트 특유의 정감어린 분위기 속에서 메타와 빈 필은 화려하고 유려한 비엔나 풍으로 〈집시 남작〉, 〈박쥐〉서곡, 〈트리치 트라치〉, 〈천둥과 번개〉폴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라데츠키 행진곡〉등 슈트라우스 일가의 유명한 곡들을 선사한다. 오스트리아 라디오 방송국 (ORF)과 일본 NHK가 협력하여 제작한 영상이다.

[구, Arthaus 100025 와 동일 영상물]

Arthaus 101452 **[DVD]**
Arthaus 108072 **[Blu-ray]**

다큐멘터리 "제국의 오케스트라"

2차 대전 당시의 베를린 필의 흑역사를 흥미롭게 다룬 음악 다큐멘터리

베를린 필은 명실상부한 우리 시대 최고의 오케스트라다. 하지만 클래시컬 음악계의 상징과도 같은 이들에게도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었다. 바로 제3제국 당시에 나치의 권력에 부역했던 이들의 행보가 그것이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클래시컬 뮤직 전문 필름 디렉터인 엔리케 산체스 란슈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제국의 오케스트라"는 바로 베를린 필의 숨길 수 없는 치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나치의 집권과 함께 베를린 필이 '제국 오케스트라'로 선포되었던 1933년부터 시작된다. 이후 유태인 단원들의 비극적인 운명, 전시에 단원들이 누렸던 특권이나 전선에서 이들이 펼쳤던 선무활동, 전쟁 막바지의 참상, 종전 후의 결과 등등이 풍부한 시각자료와 관련인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90분간 펼쳐진다. 다큐멘터리 본편과 함께 1942년 AEG 공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위문공연으로 빌헬름 푸르트뱅글러와 베를린 필이 연주했던 〈마이스터징거〉 1막 전주곡 연주영상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Blu-ray에는 한글자막이 제공되지만, DVD에는 독어 자막만 제공됩니다.]

Arthaus 108154 **[Blu-ray]**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
모던 댄스 "Divining", "Revelation", "The Stack-Up", "Cry"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안무가 앨빈 에일리의 독특한 예술세계

미국의 전설적인 흑인 무용수 겸 안무가인 앨빈 에일리는 1931년 텍사스 로저스에서 태어났다. 그가 뉴욕을 기반으로 1958년에 창단한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이하 AAADT)는 그의 뛰어난 예술적 안목을 통해 급성장하였고, 지금은 머스 커닝햄 무용단,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3대 현대무용단으로 손꼽힌다. 미국 흑인 무용계의 대부로 존경을 받았던 그는 1989년 AIDS 합병증으로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AAADT는 이후로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내한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본 영상물은 앨빈 에일리의 생전인 1986년에 제작된 것으로, AAADT를 대표하는 레프트와들인 'Diving', 'Revelation', 'The Stack-Up', 'Cry'를 앨빈 에일리 자신의 간략한 해설과 함께 담고 있다.

[1986년에 제작된 영상인 만큼 4:3 비율의 SD급 저해상도 화면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재생 시에 다른 발레 영상물들의 트레일러들이 자동으로 시작된 이후에 메인 메뉴 화면이 열린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rthaus 107549 **[7DVDs]**
Arthaus 107550 **[4Blu-ray]**

스페셜 가격 : 기존 낱장 발매분 – 박스로 재발매
바그너 : 리벨룽의 반지 전곡 [7DVDs], [4Blu-ray]
현존 최고의 바그너 마에스트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새로운 반지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리벨룽의 반지 전곡

다니엘 바렌보임

바그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Arthaus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바그너 리벨룽의 반지 전곡

블록버스터급 프로젝트가 2013년 완성된 후 먼저 낱장으로 발매되었으며, 이번에 DVD, Blu-ray 전곡 박스가(스페셜가격)로 다시 재발매 되었다. 벨기에 연출가 기 카시르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수장으로 있는 두 명문 오페라 극장인 밀라노 라 스칼라와 베를린 슈타츠오퍼와의 공동제작으로 2010년부터 2013년에 이 프로젝트를 완결했다.

1) 라인의 황금 Teatro alla Scala, 2010 Das Rheingold
2) 발퀴레 Teatro alla Scala, 2010 Die Walkure
3) 지그프리트 Teatro alla Scala, 2012 Siegfried
4) 신들의 황혼 Teatro alla Scala, 2013 Gotterdammerung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3074978 **[DVD]**
EuroArts 3074974 **[Blu-ray]**

글룩: 알세스트(알체스테)

안겔라 데노케(알세스트)/ 폴 그로브스(아드메토)/ 윌러드 화이트(타나토스)/ 마그누스 슈타벨란트(에방드르) 외/ 이버 볼튼/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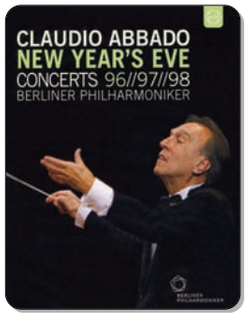
글룩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테아트로 레알의 충격적인 프로덕션

글룩은 오페라 개혁을 추구한 작곡가로 유명하다. 나폴리 스타일 오페라의 폐해를 목도하고, 그리스 비극을 재현하자는 오페라 초창기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이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 대표작이 바로 〈오르페오와 유리디체〉와 〈알체스테〉이다. 〈알체스테〉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희곡을 각색한 작품으로, 죽을 운명에 처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는 테살리아의 왕비 알체스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767년 빈에서 이탈리아어 대본에 의한 〈알체스테〉로 초연되었지만, 이후 1776년 파리에서는 많은 개정이 더해진 프랑스어 대본의 〈알세스트〉로 공연되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어 버전에 의한 공연이 더 일반적이며, 본 영상물 역시 이 버전을 사용한 공연을 담았다. 2014년 2월 글룩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마드리드의 테아트로 레알에서 펼쳐졌던 본 공연은 현대의 허울뿐인 한 왕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크시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의 획기적인 연출과 안겔라 데노케와 윌러드 화이트를 비롯한 실력파 가수들의 열연으로 큰 화제를 낳았었다.

[보조자료]

○ 남편 아드메토스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테살리아의 왕비 알케스티스의 이야기를 다룬 에우리피데스의 이야기는 후대의 여러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었다. 글룩의 오페라 외에도 륄리의 서정비극 〈알세스트 또는 알시드의 승리〉가 유명하며, 헨델 역시 이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의 극부수음악과 남편 쪽을 주인공으로 삼은 오페라 〈아드메토, 테살리아의 왕〉을 작곡하였다. 글룩의 경우 라니에리 데 칼자비지의 이탈리아어 리브레토를 토대로 완성한 〈알체스테〉로 1767년 빈의 궁정극장에서 이 작품을 초연했지만, 1776년 파리에서는 르블랑 뒤 룰레의 프랑스어 리브레토에 의한 개정버전인 〈알세스트〉로 공연하였다.

○ 이 오페라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는 아폴로의 도움으로 알세스트와 결혼한다. 이들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중병에 걸린 아드메토가 사경을 헤맬 때, 신탁은 다른 목숨의 희생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알린다. 알세스트는 남편을 위해 죽을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아드메토는 아내를 쫓아 저승으로 향한다. 죽음의 신이 알세스트의 목숨을 취하려는 순간, 영웅 에르쿨(헤라클레스)가 등장하여 죽음의 신을 물리친다. 이후 아폴로가 등장하여 전형적인 deus ex machina로 극은 행복하게 마무리된다.



EuroArts 2013504 **[3Blu-ray]**

[강력추천]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의 1996/97/98년 송년콘서트

96년 춤곡과 집시의 선율; 헝가리춤곡 발췌/ 치간느/ 라 발스/ 헝가리행진곡 외
97년 카르멘을 기리며; 카르멘 발췌/ 파가니니 랩소디/ 카르멘 판타지/ 스페인 랩소디 외
98년 사랑과 열망의 노래;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에프게니 오네긴, 아를르의 여인 발췌 외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의 1996/97/98년 송년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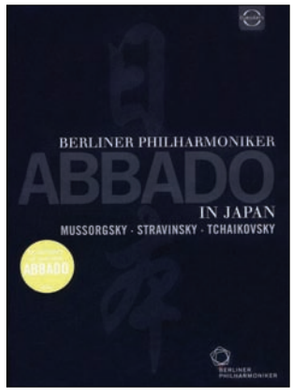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베를린 필 시절에 남겼던 송년콘서트(Silvesterkonzert) 3편이 블루레이 포맷의 박스세트로 재발매되었다. '춤곡과 집시의 선율'로 명명된 1996년의 콘서트에서는 브람스의 헝가리춤곡과 스웨덴 방송합창단이 노래한 같은 작곡가의 '집시의 노래', 그리고 막심 벤게로프가 독주를 맡은 라벨의 '치간느' 등이 연주되었다. '카르멘을 기리며'로 명명된 1997년의 콘서트에서는 안네 소피 폰 오토, 로베르토 알라냐, 브라인 터펠이 참여하여 비제의 〈카르멘〉의 일부를 노래하였고, 미하일 플레트뇨프와 길 샤함이 각각 독주를 맡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랩소디'와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그리고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 등이 연주되었다. '사랑과 열망의 노래'로 명명된 1998년의 콘서트에서는 미렐라 프레니, 크리스티네 섀퍼, 마르첼로 알바레스, 사이먼 킨리사이드가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에프게니 오네긴〉 등에서 발췌한 귀에 익은 노래들을 들려주며,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과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 등이 연주되었다.

EuroArts 2060738 **[DVD]**
EuroArts 2060734 **[Blu-ray]**

다큐멘터리
'오케스트라; 아바도와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아바도의 음악적 열정과 일상에서의 마지막 모습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베를린 필과 결별한 2002년 이후, 자신의 음악적 이상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음악동료들과 더불어 자유로운 연주활동을 펼치는 쪽에 치중하였다. 아바도는 이를 위해 2003년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2004년에는 이탈리아 볼로냐를 기반으로 오케스트라 모차르트를 조직하였다. 두 오케스트라 모두 기존의 명망 높은 실력파 연주자들과 젊은 음악도들이 자연스럽게 혼재되었고 양 악단 모두에 겹치는 멤버들도 많은데, 아바도는 작품의 시대나 규모에 따라서 두 악단을 취사선택하면서 만년의 예술혼을 불태웠었다.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2012/13년 유럽 투어 직후에 제작되었던 본 다큐멘터리는 죽음 직전까지 예술에만 매진했던 아바도의 모습과 더불어 알로이스 포슈, 라인홀트 프리드리히, 알레시오 알레그리니, 루카스 마치아스 나바로와 같은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멤버이자 세계 최정상급 솔로이스츠들의 다양한 일상에서의 모습과 인터뷰, 아바도와 오케스트라의 리허설과 콘서트 장면들을 다채롭게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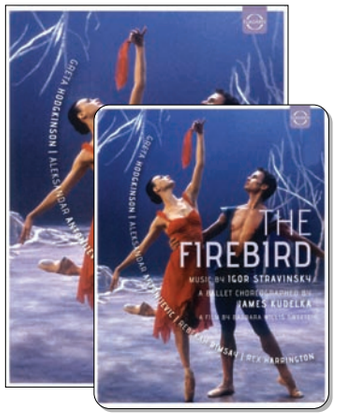
EuroArts 2012478 **[DVD]**

아바도/베를린 필의 1994년 일본 공연실황

무소륵스키: 민둥산의 하룻밤/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아바도의 서거 1주년을 기리는 베를린 필의 1994년 일본 공연 실황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서거 1주기를 기리기 위해서 1994년 10월 14일, 도쿄 산토리 홀에서 있었던 베를린 필의 일본 공연실황이 EuroArts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아바도와 베를린 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인 1994년의 기록답게 지휘자와 악단 양쪽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래서 열정적으로 공연에 임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베를린 필의 강력한 화력을 한껏 드러내도록 고려된 공연 레프트와 역시 걸출하다. 무소륵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은 일반적으로 연주되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편곡이 아닌, 작곡가 자신의 오리지널버전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작품의 이미지를 더 한층 강렬하게 발산하였고, 스트라빈스키의 출세작인 '불새' 모음곡에서는 유연한 서정과 호쾌한 박력을 자유롭게 오가는 이들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2악장의 유명한 주제를 낭랑하게 연주해가는 슈테판 도어의 풋풋한 모습과 절정기의 꽃미남 미모를 자랑하던 엠마위엘 파위 등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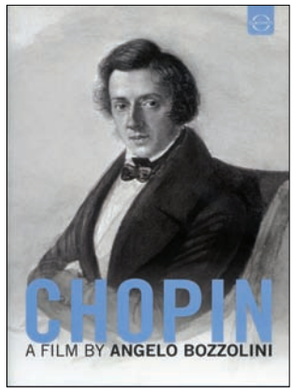
EuroArts 2061088 **[DVD]**
EuroArts 2061084 **[Blu-ray]**

스트라빈스키: 발레 "불새"

제임스 쿠델카(안무)/ 그레타 호드킨슨(불새)/ 알렉산다르 안토니예비츠(왕자)/ 렉스 해링턴(카스체이) 외/ 발레리 게르기에프/ 키로프 오케스트라

캐나다를 대표하는 안무가 제임스 쿠델카가 안무한 스트라빈스키의 걸작 발레

1910년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뤼스에 의해 파리에서 처음 공개되었던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불새〉는 한낱 무명 청년작곡가였던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출세작이 되었다. 스승 림스키-코르사코프를 통해 러시아 전통음악의 소중함을 체득했던 그는 러시아의 전설에 기초한 이 작품 안에 자국의 민요 선율들을 풍부하게 삽입하였고, 격정적인 감정 분출과 현란한 색채, 약동하는 리듬을 더함으로써 이를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발레 걸작으로 만들었다. 본 영상물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안무가인 제임스 쿠델카가 캐나다 국립 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들을 동원하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정통적인 발레에다 CG와 같은 시각효과를 적절히 더함으로써, 이 발레에 담긴 환상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캐나다의 국민 무용수인 렉스 해링턴이 마왕 카스체이를, 그레타 호드킨슨, 알렉산다르 안토니예비츠, 레베카 림제이가 각각 불새와 왕자, 그리고 공주를 열연하였으며, 발레리 게르기에프/ 키로프 오케스트라가 발레 〈불새〉의 전곡 레코딩(1995년, 필립스)이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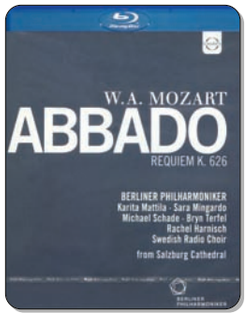


EuroArts 2058848 **[DVD]**

안젤로 보촐리니의 다큐멘터리 '프리데릭 쇼팽'

쇼팽의 삶과 음악, 위대한 쇼팽 해석가들의 소중한 옛 기록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안젤로 보촐리니의 다큐멘터리 '프리데릭 쇼팽'은 이 위대한 피아노 작곡가의 삶과 음악적 열정을 본인이 쓰거나 받았던 여러 편지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쇼팽이 태어난 곳이며 조국을 떠나기 직전까지 휴가를 보냈던 곳인 첼라초바 볼라의 전원과 그가 성장한 도시인 바르샤바,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절반을 보낸 도시인 파리를 넘나들면서 쇼팽이 남긴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다니엘 바렌보임, 마르타 아르게리치,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등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쇼팽 스페셜리스트들과 여러 음악학자들의 인터뷰도 곁들여졌다. 이 다큐멘터리를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크리스티안 치메르만,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이보 포고렐리치, 후오 총, 아담 하라셰비치 등이 쇼팽 콩쿠르에 참가했을 무렵의 앳된 모습을 비롯하여, 아르투르 루빈시타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아르투르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등의 전성기 시절을 담은 옛 필름들이 풍부하게 삽입되어있다는 점이다.



EuroArts 2016364 **[Blu-ray]**

모차르트: 레퀴엠, 라우다테 도미눔, 콘서트아리아 KV.42

카리타 마틸라, 레이첼 하니쉬(sop)/ 사라 밍가르도(alt)/ 마이클 쉐이드(te)/ 브라이언 터펠(br)/ 스웨덴 방송합창단/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하모니커

아바도 서거 1주기를 기리며 재출시된 카라얀 서거 10주기 추모 콘서트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이 지난 1999년 7월 16일 잘츠부르크대성당에서 공연했었던 모차르트의 레퀴엠 실황이 거장의 서거 1주기를 기념하여 Blu-ray 포맷으로 재출시되었다. 이날의 공연은 그의 전임자였던 위대한 마에스트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서거 10주기를 기리는 의미심장한 콘서트였는데, 바로 그 실황이 본인의 서거 1주기를 기하여 다시 출시된 것이다. 이날의 콘서트는 카라얀의 미망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잘츠부르크대성당의 장엄한 인테리어와 풍성한 잔향은 추모 콘서트의 분위기를 더 한층 진지하고 엄숙하게 만들어준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상급 성악가들인 카리타 마틸라, 사라 밍가르도, 마이클 쉐이드, 브라이언 터펠은 자신들의 이름값에 걸맞은 뛰어난 가창으로 이 연주의 감동을 더하며, 스웨덴 방송합창단의 정갈한 음색과 베를린 필의 정교한 앙상블도 흠잡을 곳이 없다. 절충주의적인 관점에서 담백하게 이 걸작을 읽어나가는 아바도의 절제된 해석도 추모음악회라는 이 콘서트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

EuroArts 2072724 **[Blu-ray]**

베토벤: 교향곡 5번/ 교향곡 9번 '합창'

안나 토모바-신토브(sop)/ 아그네스 발차(ms)/ 르네 콜로(te)/ 조세 반 담(bass)/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베를린 필하모니커

블루레이로 재출시된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전설적인 1977년 송년음악회

과거 DVD 포맷으로 발매되면서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1977년 송년음악회 실황이 보다 풍성한 내용물과 더불어 Blu-ray 포맷으로 재발매되었다.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던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안나 토모바-신토브, 아그네스 발차, 르네 콜로, 조세 반 담으로 이어지는 당대 최정상급의 솔리스트들의 절창과 베를린 도이체 오퍼 합창단의 박력 넘치는 합창 앙상블이 실황 특유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멋지게 어우러졌던 본 콘서트실황은 카라얀이 남겼던 여러 베토벤 교향곡 9번의 기록들 중에서도 단연 첫 손에 꼽히는 전설적인 명연이다. 1080i HD 수준으로 업스케일된 화면은 70년대의 영상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준수한 해상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전에 별도의 DVD로 발매되었던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전곡 연주와 그 리허설 장면의 일부가 보너스로 함께 제공된다. 1966년에 베를린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저해상도 흑백영상이지만, 장년기의 카라얀이 뿜어내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경험해볼 수 있다.

EuroArts 2059998 **[DVD]**
EuroArts 2059994 **[Blu-ray]**

마르타 아르헤리치, 다니엘 바렌보임 피아노 듀오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슈베르트: 변주곡/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인생의 황혼기에 전설이 되어서 다시 만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두 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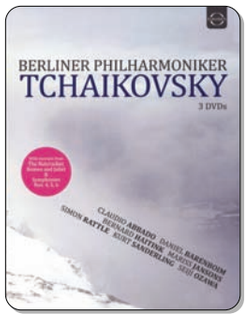
1949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저명한 문화애호가의 저택에서 펼쳐졌던 사설 음악회에 두 부인이 각각 자기 아들과 딸의 손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그 저택을 누비며 숨바꼭질을 하던 7살 소년과 8살 소녀는 6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의 반열에 등극하였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바렌보임이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장을 맡았던 1980년대에 몇 번의 협연무대와 한 번의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이후 이들이 다시 한 무대에 서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2014년 4월 19일, 베를린의 필하모니에서 이 두 전설이 함께 피아노 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고, 이 역사적인 실황이 EuroArts를 통해 영상물로 출시되었다. 프로그램 중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버전은 아르헤리치가 특별히 이 무대를 위해서 최초로 도전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타건과 탁월한 리듬감각으로 바렌보임의 화려하고도 섬세한 연주와 더불어 멋진 시너지를 만들어내었다.

EuroArts 2013114 **[Blu-ray]**

음악 다큐멘터리 "드뷔시 전주곡 1권"

다양한 영상 이미지와 바렌보임의 섬세한 터치로 감상하는 드뷔시의 전주곡

드뷔시는 각각 12곡으로 구성된 2권의 전주곡집을 남겼다. 바흐나 쇼팽이 24개의 조성 각각을 사용하여 24편의 작품을 완성했던 것과 달리, 드뷔시의 전주곡들은 조성과의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자신의 전주곡 연작이 사적으로 연주되고 또 감상되기를 원했다. 작곡가의 뜻을 반영하여 완성한 이 독특한 음악 영상물에서, 다니엘 바렌보임은 작곡가의 당대를 재현한 영상들과 함께 전주곡 1권에 수록된 작품들을 섬세하고도 감각적인 터치로 연주하였다. 건축물, 고색창연한 옛 사진, 무용수들의 춤사위, 자연의 아름다운 이미지 등등이 각 작품의 테마와 작곡가의 개인적인 인생 여정을 환기시켜주며, 작곡가의 가까운 지인들이 남긴 코멘트들, 작품의 영감이 되었던 프랑스의 문학작품들의 일부, 드뷔시 본인이 남긴 일기와 기록들도 필름 곳곳에 효과적으로 삽입되었다. 60분 분량의 필름 본편과 더불어 2000년 9월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있었던 바렌보임의 데뷔 50주년 기념 리사이틀의 일부가 보너스로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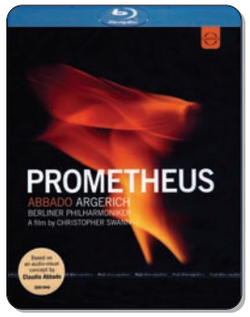
EuroArts 2060968 **[3DVD]**

베를린 필하모니커 차이코프스키 앨범
교향곡 4-6번,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템페스트', 호두까기인형 발췌 외

사이먼 래틀, 쿠르트 잔데링, 세이지 오자와, 마리스 얀손스, 다니엘 바렌보임 외

이 시대 대표 거장들과 함께 연주한 베를린 필의 차이코프스키 걸작들

차이코프스키의 관현악작품들은 카라얀 시절부터 지금까지 베를린 필의 단골 레프트와로 사랑받고 있다. 본 신보는 베를린 필이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마에스트로들과 함께 연주했던 차이코프스키의 대표 관현악 걸작들을 한 자리에 모은 것으로, 기존에 개별 제품으로 출시되었던 공연실황 영상들 중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작품들만을 3장의 DVD에 갈무리한 것이다. 교향곡 4번은 1992년 6월 필하모니에서 당시 80세의 노거장 쿠르트 잔데링이 노익장을 발휘했던 연주를 담았으며, 교향곡 5번은 아바도의 지휘로 1994년 10월 산토리 홀에서 연주했던 일본 공연 실황으로, 교향곡 6번은 2008년 1월 카라얀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세이지 오자와의 지휘로 연주했던 실황으로 담았다. 이외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1993년, 하이팅크), 관현악 환상곡 '템페스트'(1998년, 아바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일부 수록곡들(2001년, 바렌보임 & 2002년, 래틀), 그리고 마리스 얀손스가 바딤 레핌의 바이올린과 함께 한 '멜로디'와 '왈츠-스케르초' 등이 수록되었다.



EuroArts 2001944 **[Blu-ray]**

프로메테우스–신화를 주제로 한 음악 작품들

마르타 아르헤리치(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

아르헤리치, 아바도, 베를린 필이 불을 설명하다!

불을 훔친 죄로 제우스의 벌을 받아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고 밤에는 다시 간이 생성되는 고통을 당한다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주제로한 음악 작품들을 담은 영상물이다. 먼저 나오는 곡은 베토벤의 유명한〈프로메테우스의 불〉이다.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베를린 필 단원들의 얼굴, 그리고 화면 전체가 붉어지면서 서주가 시작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리스트의 교향시 5번 〈프로메테우스〉가 10여분에 걸쳐 연주된다. 매우 격정적인 음악이다. 화면이 어둑하게 바뀌면 붉은빛과 푸른빛이 번갈아 번득이는 가운데 스크랴빈의 환상적인 작품 〈불의 시 프로메테우스〉가 연주된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과 함께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뜨겁게 달궈진 피아노 선율을 풀어놓는다. 현대 작곡가 루이지 노노의 1992년 작품인 모음곡 〈프로메테오〉도 담겼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내용과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자막으로 처리되어 이해를 돕고 있다.

EuroArts 2005674 **[Blu-ray]**

블루 노트 – 모던 재즈 이야기

출연: 밥 벨든, 아트 블레이키, 론 카터, 존 콜트레인, 밥 크렌쇼, 덱스터 고든, 조니 그리픈, 에비 행콕, 프레디 허버드, J.J.존슨, 타지 마할,길 멜, 씰러니어스 멍크, 프랜시스 포드러스, 버드 바월, 앙드레 프레빈, 맥스 로치, 소니 롤린스, 카를로스 산타나, 지미 스미스,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카산드라 윌슨...

이 Blu-ray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우리 시대 세계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을 모아놓은 유명인사목록이 아닌가 싶다. 아트 블레이키, 존 콜트레인, 허비 행콕, 씰러니어스 멍크, 소니 롤린스, 1950년대, 60년대 위대한 재즈 시대와 동의어가 된 사람들이다. 카를로스 산타나, 카산드라 윌슨, 앙드레 프레빈과 함께 요아힘 에른스트 베렌트,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같은 재즈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백과 사전적인 기획. 블루 노트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생생한 사운드와 함께 위대한 음악영상물을 만날 수 있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244 **[DVD]**
Accentus ACC10244 **[Blu-ray]**

모차르트: 콘서트아리아, 교향곡 35번 '하프너' / 베토벤: 극부수음악 "에그몬트"

크리스티네 샤퍼 & 율리아네 반제(sop)/ 브루노 간츠(narr)/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만년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정성껏 빚어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걸작들

2014년 1월 20일 81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던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 거장의 서거 1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Accentus에서는 고인이 남겼던 루체른 페스티벌의 미출시 실황 영상들을 최고 사양의 영상물로 출시하였다.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샤퍼가 독창을 맡은 모차르트의 콘서트아리아 3편(KV.369, 272, 418)과 교향곡 35번 '하프너'는 2011년의 실황이며, 괴테의 희곡을 바탕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극부수음악 '에그몬트'는 2012년의 실황이다. 샤퍼의 노련하고도 정교한 가창은 모차르트 아리아들의 화려함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아바도의 군더더기 없는 지휘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량이 멋진 시너지를 드러내는 '하프너' 교향곡의 감동도 각별하다. 리트와 독일 오페라 쪽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소프라노 율리안 반제의 독창과 영화 '몰락'에서 히틀러 역을 열연했던 스위스 출신의 대배우 브루노 간츠의 나레이션은 '에그몬트'의 극적인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낸다. 모차르트의 아리아들과 '에그몬트'에는 한글자막이 지원된다.

Accentus ACC20325 **[DVD]**
Accentus ACC10325 **[Blu-ray]**

브람스: 교향곡 2번, 세레나데 2번, 알토랩소디

사라 밍가르도(alt)/ 안드리스 넬손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콘서트 실황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는 한 거장을 위해 조직된 악단이나 다름없었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이하 LFO)는 2014년 1월 아바도의 사망 이후 자신들의 존립 여부에 대한 갈림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15/16일, 루체른 KKL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연주회는 LFO가 아바도가 아닌 다른 지휘자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선언하는 현장이었다. 같은 해 4월의 아바도 추모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안드리스 넬손스가 다시 한 번 LFO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브람스의 작품들만으로로 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것이다. 현 파트에서 바이올린이 생략된 독특한 편성의 작품인 세레나데 2번에서는 빼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LFO 목관 솔리스트들의 활약이 더 한층 빛나며, 사라 밍가르도의 흑단과도 같은 짙은 목소리가 더해진 알토랩소디가 이어진다. 연주회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작품은 교향곡 2번이다. 넬손스의 단정한 리드와 LFO의 섬세한 연주력은 이 교향곡에 담긴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한껏 드러내면서 이 의미심장한 콘서트를 훌륭히 마무리하였다.

Accentus ACC20240 **[DVD]**

탱고 (피아졸라, 가르델, 마피아, 라우렌스 외)

카페 데 로스 마에스트로스와 친구들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펼치는 본고장 탱고의 진한 매력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를 관통하는 라플라타 강 인근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탱고는 특유의 감각적인 리듬과 관능적인 매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춤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영상물은 아르헨티나 탱고의 역사와 함께 했던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탱고의 산실과도 같은 전설적인 무도회장인 '엘 팔라치오'에 함께 모여서 가졌던 특별한 콘서트를 수록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탱고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인물인 후안 카를로스 고도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로돌포 메데로스, 피아졸라의 긴밀한 음악 동료들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난도 수아레스 파스와 가수 테레사 파로디, 21세기 탱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이 나라의 인기 모던 탱고 밴드 오트로스 아이레스 등이 참여하여 본고장 탱고의 진정한 매력을 유감없이 펼쳐보인다. 또한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이자 탱고 전문 기타리스트인 구스타보 모치의 해설은 탱고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Dynamic 37687 **[DVD]**
Dynamic 57687 **[Blu-ray]**

도니체티: 안나 볼레나

마르타 토르비도니(안나)/ 페데리코 베네티(엔리코)/ 라우라 폴베렐리(소반나)/ 디오니소스 트산티니스(로케포르트) 외/ 파비오 비온디/ 에우로파 갈란테

파비오 비온디의 지휘로 만나는 1840년 개정버전의 〈안나 볼레나〉

강력한 전제왕권으로 4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헨리 8세는 왕성한 식욕과 색욕으로도 많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원래 형수였던 첫 부인과 이혼하기 위해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고, 그 난리 끝에 결국 손에 넣었던 앤 볼린과의 재혼도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렸다. 그의 둘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과의 스캔들은 영화 '천일의 앤'이나 '천일의 스캔들', 그리고 미드 '튜더스'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페라에 담은 작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도니체티의 〈안나 볼레나〉이다. 이른바 '여왕 3부작'의 가장 첫 작품인 이 오페라는 1830년 밀라노에서 초연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도니체티는 시대극 분야의 대가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본 영상물은 2013년 9월 이탈리아 중부의 도시인 리에티에서 공개되었던 체사레 스카르톤의 전통적이고 사실적인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1840년 라 스칼라 극장을 위한 개정버전을 사용한 점과 시대악기 연주 분야에서 큰 획을 그었던 파비오 비온디와 에우로파 갈란테가 반주를 맡은 점이 눈길을 끈다.

[보조자료]

○ 1509년부터 1547년까지 장장 38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헨리 8세는 오랜 통치기간 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유럽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국내에서도 방영되었던 미드 '튜더스'가 바로 그를 주인공으로 이 시대를 다루었었고, 나탈리 포트만과 스칼렛 조한슨이 출연했던 영화 '천일의 스캔들'과 그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일의 앤' 등도 바로 그의 애정편력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었다. 또 자신의 앤 볼린과의 재혼을 위해서 성공회를 만들어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된 것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 도니체티의 오페라 〈안나 볼레나〉는 바로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였던 앤 볼린을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이다. 오페라는 안나 볼레나(앤 볼린)이 왕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된다. 안나는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지만 엔리코(헨리)가 원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좌불안석이다. 안나에게서 점점 싫증을 느끼게 된 엔리코는 안나의 시녀였던 조반나(제인 시모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후의 결말은 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나는 처형장으로 향하고, 조반나가 엔리코의 세 번째 왕비가 된다.– 도니체티는 시대극에 특히 강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튜더–플레자넷트 왕조를 배경으로 만든 세 편의 오페라인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로베르토 데버루〉가 이른바 '여왕 3부작'으로 널리 알려졌다. 〈마리아 스투아르다〉와 〈로베르토 데브뢰〉에는 〈안나 볼레나〉의 주인공인 안나가 낳은 딸인 엘리자베타(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하는데, 전자에서는 젊은 시절 벌어졌던 스코틀랜드 여왕인 마리아 스투아르다(매리 스튜어트)와의 갈등이, 후자에서는 노년에 자신이 아끼던 신하 로베르토 데브뢰(로버트 데브로)와의 애증을 다루었다.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37680 **[DVD]**

살바토레 아카르도 마스터클래스 Vol. 4 with 소피아 젤소미니, 에도아르도 초시

라벨: 치간느/ 브람스: 바이올린소나타 1번

아카르도의 혜안을 통해 만나는 라벨의 치간느와 브람스의 소나타 1번

'파가니니의 재래'라고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탈리아 출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살바토레 아카르도는 현재 명기의 고향 크레모나에 위치한 월터 스타우퍼 아카데미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 중이다. 아카르도의 마스터클래스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본 DVD는 바이올린 학도들은 물론, 일반 애호가들에게도 작품과 연주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시리즈의 네 번째 음반인 본 신보에서는 2010/11 이탈리아 국립 예술상(Premio Nazionale delle Arti) 현악부문 수상자인 소피아 젤소미니와 함께 집시의 선율을 차용한 라벨의 걸작 바이올린 소품인 치간느를 상세히 탐구하였고, 2003년 비오티 콩쿠르 우승자이자 현재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 중인 에도아르도 초시와의 마스터클래스에서는 브람스의 바이올린소나타 1번을 다루고 있다. 시리즈의 이전 세 출시작에 삽입되었던 한글자막이 다소 문맥이 어색하고 오탈자가 많았던 것에 반하여, 이번 신보의 한글자막은 보다 자연스럽고 충실한 번역을 담고 있다.

Dynamic 33674 **[DVD]**
Dynamic 55674 **[Blu-ray]**

로시니: 세미라미데

미르토 파파타나시우(세미라미데)/ 안 할렌베르크(아르사체)/ 요제프 바그너(아수르)/ 로버트 맥퍼슨(이드레노) 외/ 알베르토 체다/ 플랑드르 오페라 헨트

노거장 알베르토 체다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로시니 최고의 오페라

세리아로시니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오페라 부파들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페라 세리아에서도 걸출한 작품들을 꾸준히 완성하였다. 1823년 베네치아에서 초연되었던 〈세미라미데〉는 〈기욤 텔〉과 더불어 로시니를 대표하는 오페라 세리아로 꼽히는 걸작으로, 특히 이 작품은 그가 이탈리아에서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초연 당시 타이틀 롤은 로시니의 아내인 이사벨라 콜브란이 담당했는데, 이후 28번이나 반복 공연되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주요 배역의 높은 성악적 난이도와 작품 전반의 큰 스케일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공연 빈도가 급격히 줄기는 했지만, 20세기 후반에 와서 조안 서덜랜드, 마릴린 혼, 줄리에타 시묘나토와 같은 걸출한 벨칸토 가수들의 열정 덕분에 이 작품은 다시 로시니의 인기 오페라의 하나로 사랑받게 되었다. 본 영상물은 2011년 1월 헨트의 플랑드르 오페라에서 공연되었던 영국의 저명한 연출가 나이젤 로리의 현대적인 프로덕션을 담은 것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로시니 전문 지휘자인 노장 알베르토 체다가 지휘봉을 잡았다.

[보조자료]

○ 로시니의 오페라들 중에서 〈세비야의 이발사〉, 〈라 체네렌톨라〉, 〈도둑까치〉,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등의 오페라 부파들이 워낙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의 오페라 세리아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그가 완성한 세리아들 중에서 〈기욤 텔〉, 〈세미라미데〉, 〈탄크레디〉, 〈이집트의 모세〉 등은 최근 들어서 점차 연주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다. 〈세미라미데〉의 리브레토는 볼테르의 희곡 '세미라미스'(Semiramis)를 가에타노 로시가 이탈리아어로 각색한 것이다. 초연은 1823년 베네치아 라 페니체극장에서 있었는데, 이는 로시니가 이탈리아에서 완성한 마지막 오페라이기도 하다.

○ 고대의 바빌론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오페라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바빌론의 왕비 세미라미데는 신하 아수르와 내통해서 남편이자 왕인 니노(니누스)를 살해하고 권력을 잡는다. 세미라미데는 젊고 용감한 근위대장인 아르사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아르사체는 공주 아체마를 사랑한다. 선왕 니노는 죽기 직전 자신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사제 오로에에게 서신으로 남겼는데, 그 서신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아르사체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다.

○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로시니 스페셜리스트로 손꼽히는 지휘자 겸 음악학자인 알베르토 체다는 1928년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밀라노음악원에서 안토니오 보토와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를 사사했으며, 1956년 〈세비야의 이발사〉로 데뷔했다. 음악학자로서 비발디, 헨델, 도니체티, 벨리니 등의 여러 작품을 개정했으며, 특히 로시니에 대한 열정은 남달라서 필리 고세트와 더불어 로시니 오페라 전체에 대한 크리티컬 에디션을 편찬하기도 했다.

Dynamic 37683 **[DVD]**
Dynamic 57683 **[Blu-ray]**

포리노: 샤르다나(I Shardana)

만리코 시뇨리니(곤나리오)/ 안젤로 빌라리(토르베노)/ 도메니코 발차니(노라체)/ 파올레타 마로쿠(베르베라 요냐) 외/ 안소니 브라말/ 테아트로 리리코 디 칼리아리

청동기의 샤르데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조국애의 격렬한 갈등

청동기 후반 지중해 일대를 석권했던 미케네, 히타이트, 이집트 등의 문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정체불명의 해양민족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거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들 해양민족의 일파인 Shardana(영어로는 Sherden)가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샤르데냐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샤르데냐 출신의 작곡가 포리노는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마지막 오페라 걸작인 〈샤르다나〉를 완성하였다. 샤르다나의 우두머리인 곤나리오는 장성한 두 아들 오르초코와 토르베노를 이끌고 이민족과의 전투에 나선다. 하지만 토르베노는 적의 일원인 베르베라 요냐와 사랑하는 사이다. 토르베노는 사랑과 조국애 사이에서 갈등하고, 곤나리오 역시 부성애와 조국애 사이에서 갈등하며 극은 점점 처절한 결말로 치닫는다. 1959년 나폴리에서 초연되었던 이 작품은 포리노를 대표하는 오페라 걸작으로 손꼽힌다. 본 영상물은 2013년 9월 샤르데냐의 주도 칼리아리의 테아트로 리리코에서 공개되었던 중견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모레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담은 것이다.

[보조자료]

○ 에니오 포리노(Ennio Porrino)는 1910년 샤르데냐 섬의 주도인 칼리아리에서 태어났다. 레스피기를 사사했던 그는 당시 이탈리아 음악계를 지배하던 카셀라, 달라피콜라, 말리피에로 등의 모더니스트 음악에 맞서서 이탈리아 국민음악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936년 레스피기의 죽음 이후 그는 스승의 미완성 유작이었던 오페라 〈루크레치아〉를 스승의 미망인인 엘사와 함께 완성하여 이듬해 라 스칼라에서 초연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등의 음악원들을 거치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고, 1956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칼리아리 음악원의 원장을 맡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년 뒤에 49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 샤르데냐에 대한 애향심이 각별했던 그는 고향을 소재로 자신의 대표 관현악곡인 교향시 '샤르데냐'와 오페라 〈샤르다나〉를 완성하였다.

– "누라게의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오페라 〈샤르다나〉는 포리노가 사망하기 불과 6개월 전인 1959년 3월 21일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레브레토는 포리노 본인이 고향 샤르데냐의 고대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완성하였다. 오페라의 제목인 "Shardana"(영어로는 Sherden)는 청동기 말미에 지중해 동부를 유린했던 호전적인 해양민족의 일파를 말한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들이 샤르데냐(Sardegna) 섬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포리노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여 이들을 소재로 애향적인 내용의 오페라인 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부제에 등장하는 누라게는 샤르데냐섬에 남아있는 성채 모양의 청동기 거석유적을 말한다.

낙소스 코리아 추천도서

-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사로잡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CD 2장 부합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
간행물윤리 위원회 선정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제러미 시프먼 지음 | 임선근 옮김 | 155×220mm | 280쪽 | 20,000원
위대한 작곡가이자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매혹적인, 그러나 정의하기 어려운 그의 참모습을 보다.

베토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 김병화 옮김 | 155×220mm | 288쪽 | 20,000원
음악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와 맞붙어 싸웠던 영웅, '악성 베토벤', 키가 작다는 것만 빼면 모든 면에서 거인이었다.

하이든, 그 삶과 음악
데이비드 비커스 지음 | 김병화 옮김 | 155×220mm | 248쪽 | 20,000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일생을 통해 18세기 유럽의 역사와 음악을 훑어본다.

멘델스존 그 삶과 음악
닐 웰본 지음 | 김병화 옮김 | 155×220mm | 288쪽 | 20,000원
평론가들이 뽑은 음악사 최고의 천재. 38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믿기 어려운 기록들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의 일생을 파고든다.

CD 2장 부합

쇼팽, 그 삶과 음악
제러미 니콜러스 지음 | 임희근 옮김 | 155×220mm | 368쪽 | 20,000원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마음, 피아노의 영혼. 39년의 짧은 삶을 오직 피아노를 위해 살았던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자 쇼팽을 만난다.

말러,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 임선근 옮김 | 155×220mm | 260쪽 | 20,000원
클래식 애호가의 폭넓은 사랑과 경배를 받는 말러. 인간 말러의 기쁨과 슬픔, 그의 예술적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차이콥스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 김형수 옮김 | 155×220mm | 260쪽 | 20,000원
괴팍한 천재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영화음악을 예고하는 러시아의 서정, 섬세하고 매력적인 예술가 차이콥스키를 만난다.

바그너,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 이석호 옮김 | 155×220mm | 276쪽 | 20,000원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재능으로, 반유태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그너의 불꽃 같은 삶과 음악을 만난다.

- 음반 2장과 함께 읽는 〈클래식, 시대와의 만남〉 시리즈

CD 2장 부합

클래식, 고음악과의 만남
루시엔 젠킨스 지음 | 임선근 옮김 | 150×220mm | 124쪽 | 20,000원
교회음악과 중세음악은 물론, 음악에 적극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싣기 시작하며 인쇄술의 발전으로 음악의 대중확산에 기폭제가 되었던 르네상스 음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바로크시대와의 만남
클라이브 옹거 해밀턴 지음 | 김형수 옮김 | 150×220mm | 160쪽 | 20,000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음악으로,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의 작품을 통해 '바로크'의 원뜻인 '기괴하다'는 조롱이 사라지고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유럽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클래식, 고전시대와의 만남
스티븐 존슨 지음 | 김지랑 옮김 | 150×220mm | 128쪽 | 20,000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초까지의 음악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걸작들, 베토벤의 원숙한 첫 작품이 탄생했다. 자연과 인간,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추구한 고전시대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낭만시대와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리 지음 | 김형수 옮김 | 150×220mm | 184쪽 | 20,000원
19세기에 성행했던 음악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연주 기법, 그리고 주제와 이념을 소설과 미술 등에서 찾는 표제음악이 발전했다.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이 있다.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리 지음 | 김형수 옮김 | 150×220mm | 224쪽 | 20,000원
전통적 표현 수단과 결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활발했던 20세기의 음악으로, 필립 글래스, 쇼스타코비치, 메시앙 등을 통해 우연성 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등을 접할 수 있다.

출판사 : PHONO 음악, 삶의 풍요

판매처 :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클래식 음반사 Naxos의 한국지사, 낙소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구독 및 관련사업, 음원유통,
라이센싱 업무 등에 관해서는 낙소스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naxos.co.kr | twitter.com/naxoskorea
Naxos Korea (낙소스 코리아) 02-717-1070

NAXOS MUSIC LIBRARY | NAXOS SPOKEN WORD LIBRARY | NAXOS Music Library Jazz | naxos video library
NAXOS WEB RADIO | NAXOS AudioBooks | YouTube | twitter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Naxos를 비롯한 Warner Classics, Teldec, EMI Classics...등 다양한 레이블의 1백만여 곡의 음악을 스트리밍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낙소스 코리아)

[핫 이슈]

야니그로 콩쿠르 우승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첼로 기대주

'하리트 크레이흐'
Harriet Krijgh

하리트 크레이흐가 첼로의 그윽한 중저음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 애청곡들을 함께 연주하였다.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생상스의 '백조', 포레의 '엘레지', 차이코프스키의 '야상곡', 카잘스의 '새들의 노래',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 등을 수록.
포트레이트 다큐멘터리를 담은 보너스 DVD가 함께 제공된다.

Capriccio CD C5222

표지사진
RCO LIVE 베토벤 교향곡 전곡
DVD, Blu-ray

〈아울로스뉴스〉 2015년 4월호
통권 제 61호 발행 : 2015년 5월 5일
발행인 : 임용묵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신설동)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